

# KICI Brief

2026년 1호



# KICI Brief

2026년 1호

<b>제1장 KICI Insight</b>	05
1. 정보통신공사 산업 동향 분석 및 2026년 경기전망 예측	06
2. 2026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주요현황과 시사점	20
3.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국내·외 실태조사	32
<b>제2장 Issue Brief</b>	5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업무계획	52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6 AI · ICT 10대 이슈	55
3. Innovators Show Up, CES 2026	57
4. 2026년 이통3사 설비투자(CAPEX) 전망	59
<b>제3장 Stats</b>	61
1. 정보통신공사서비스 동향	62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63
<b>제4장 KICI News&amp;Now</b>	65
<b>Event Info</b>	73



# KICI Insight

주제1

## 정보통신공사 산업 동향 분석 및 2026년 경기전망 예측

1. 연구 배경 및 목적	06
2. 주요 ICT산업 동향	07
3. 정보통신공사 2026년 경기전망 분석	13
4. 시사점	17

## 정보통신공사 산업 동향 분석 및 2026년 경기전망 예측

원가관리실 김현진 책임연구위원 / dualion@kici.re.kr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AI 개발 및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활황 등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물가 등에 의한 내수 둔화 및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국내 ICT 시장은 AI 관련 정책·전략 및 민간시장의 AI·디지털 서비스 개발 통해 혁신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에 적용되는 범위 또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능력,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의 발전 등은 다양한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
-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설비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ICT 정책 환경까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한 전망 및 대응방안 수립 또한 요구됨
-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사업이 건설산업에 비해, 시장 및 경기전망 분석 등의 데이터들이 다소 부족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함에 따라, 해당 연구를 통해 차년도 경기전망을 분석하고 ICT 분야 확산에 따라 새롭게 각광받는 신산업을 제시

##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유관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시장현황을 진단하고, 신산업 발굴 등 정보통신공사 업역 확대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또한 국내·외 ICT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사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를 파악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을 지원하는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 2. 주요 ICT산업 동향

### 가. 인공지능(AI)

-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축적, 컴퓨팅파워 증대를 발판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인공지능 시장은 새로운 글로벌 경쟁 국면에 진입
- 해외의 경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애플 맥북·아이폰, 테슬라 자율주행차, 아마존 클라우드)에 초고속·저전력 AI 반도체를 적용하여 성능 극대화 추진
- 반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AI 고도화 위한 인프라를 확보·지원해 왔으나, 국내 보유한 AI 관련 자원으로 고성능 AI모델을 개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미국·유럽·중국 대비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이 뒤처지고 있음
  - 자체 AI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나, 최고기술 선도국인 美대비 여전히 1년 이상 격차 유지중이며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sup>1)</sup>
    - ※ 美 대비 기술격차 : 한국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
  - 정부와 민간에서는 AI 관련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위한 AI모델 개발, 고급AI 인재 양성, AI전환 등 관련 정책 추진

1)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2025)

# KICI Insight

- 정부에서는 국정 핵심과제인 AI와 관련하여 '24년에 이어 '25년 또한 계속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 또한 기업의 핵심 비전과 정체성을 'AI 컴퍼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 새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 관계부처간 논의 통해 발표된바 있는 '새정부 경제 성장전략('25.8월)'에서도 초혁신경제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AI대전환(AI로봇 등 선도 프로젝트) 발표<sup>2)</sup>
  - 정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총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 하여, 시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쏠분야 AI 활용 촉진 위한 기반 조성 마련을 목표로 함

[표-1]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내 AI대전환 관련 내용

구분	민간부문 7대 선도프로젝트('25. 下 즉시추진)
AI 로봇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핵심부품 등) 및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AI 자동차	-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버스·택시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AI 선박	-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
AI 가전	-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AI 드론	-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 하고, 제도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
AI 팩토리	- 주력 제조업(자동차 등)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시설·장비 도입 등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
AI 반도체	-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실증 지원
구분	공공 업무 부문 3대 선도프로젝트('25. 下 즉시추진)
AI 복지·고용	- AI를 활용해 그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 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
AI 납세관리	- AI 세무상담·검색 도입('26년),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전면개편('27년)해 납세편의 제고, AI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
AI 신약심사	-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 대폭 단축 및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 자동처리

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2025)

-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과 같은 글로벌기업의 AI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고도화 차원을 넘어, 핵심 제조 역량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대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품(디바이스)·제조·서비스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전략 추진 중
- 삼성전자는 디바이스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에,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빌리티와 로봇스에 AI를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그림-1] 삼성전자 및 현대차 그룹의 AI사업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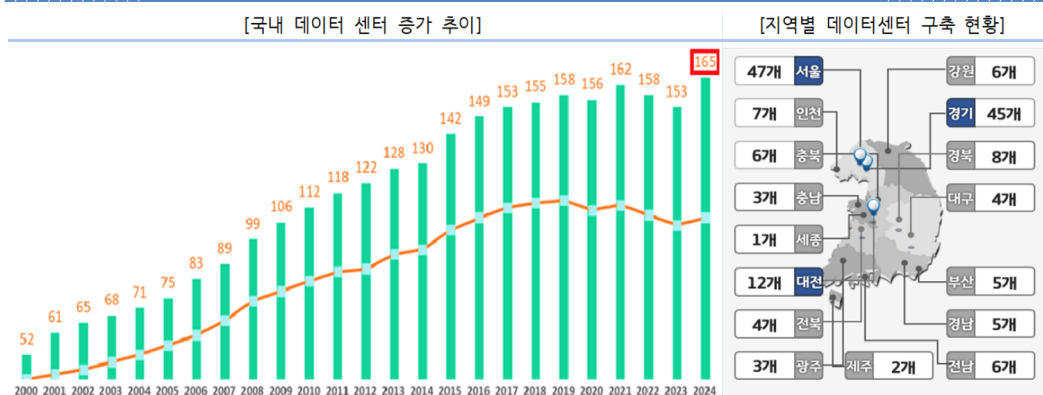
- 통신사업자(KT 등 주요통신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방대한 통신 데이터, 강력한 인프라(IDC, 네트워크망), 그리고 고객 접점 채널을 기반으로 LLM(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B2C 및 B2B 전 영역에 적용하는 AI 대전환을 추진
- 각사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AI기능을 탑재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동예측하고 최적화하여 통신장애를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KT는 AI를 활용한 미디어, 금융, 공공 등의 산업 특화 솔루션, SKT는 UAM 및 헬스케어 등 미래 사업에 AI를 접목하여 추진 중

## 나. 데이터센터 산업

㉔ 데이터센터는 ICT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관리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2027년까지 약 30여개의 상업용 신규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준공 될 예정<sup>3)</sup>

○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2023년 40개에서 2027년 약 74개로 증가할 전망이며, 구축 관련 프로젝트는 추진 또는 계획 중이고, 총 투자액은 약 14조원 규모<sup>4)</sup>

[그림-2] 국내 데이터센터 추이 및 지역별 구축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 재구성

○ 새 정부의 시·공간 산업 확산 정책 기조 및 민간에서의 AI 서비스 중요도 인식에 따라 일반적인 유형의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네트워크 및 다수의 서버랙, 보안능력이 다소 높은 통신제어장치가 수반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또한 확산 중

- 대용량 서버 및 망 이중화에 따른 원활한 트래픽 분산·대응, 인건비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의 이점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

※ 네이버 세종 각(약 6,500억원 규모), 카카오 안산 IDC(약 4,000억원 규모), NHN 경남 김해 IDC(약 5,000억원 규모)

- 그밖에 공공에서도 공공서비스 및 행정능력 제고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민간부문 또한 서비스 운영유지 및 개발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뿐만 아니라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중

3)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홈페이지, <https://kdcc.or.kr>

4)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아시아로 확장", 글로벌 이코노믹(2024)





[표-2] 통신부문 민간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현황

사업자	구축지역	완공 예정시기	시설 규모
KT 클라우드	서울시 구로	~'28년 4월	- 연면적 : 1만 9,225m2 - 수전용량 : 30MW - 건물규모 : 지하4층~지상8층
LG 유플러스	경기도 파주	~'27년	- 연면적 : 7만 3,712m2 - AI전용이며 하이퍼스케일*급 * 연면적 2만 2,500m2, 서버 최소 10만대이상, 국내 3번째 규모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5층
SK AX	대구시 수성	~'27년 상반기	- 연면적 : 2만 9,752m2 - 대구 수성 알파시티 내 건립 - AI전용 데이터 센터
SK 텔레콤	울산시	미정	- AI전용 데이터센터 - SK브로드밴드,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계열사 동참 - 청정수소, 해상풍력, LNG 냉열 이용해 친환경적 냉방관리 목표
삼성SDS	경북 구미	미정	- 삼성전자 AI전용 데이터센터 - 구미 1공장 부지 매입

## 다. 이음 5G특화망

☐ 이음 5G특화망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특화망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전용 5G망이며,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공간(건물, 시설, 장소 등)에서 수요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최첨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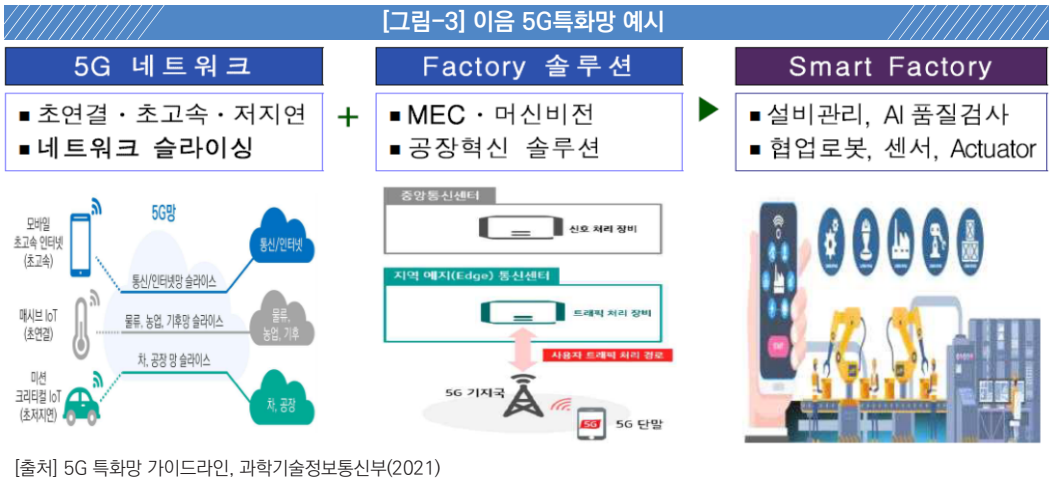
[표-3] 이음 5G특화망 주요 기능 및 활용분야

구분	주요기능	활용분야	
데이터 보안성 강화	- 외부망과 분리된 독립망으로 데이터 유출 위험 최소화		
지연시간 최소화(Low Latency)	-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	문화·여가 ▶ 스마트 시트 ▶ XR 디바이스 ▶ AI해설사, 증강현실	교육 ▶ 원격 수업 ▶ 증강현실 안내맵 ▶ XR 디바이스
맞춤형 QoS(품질보장)	- 각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품질 설정 가능	 관광 ▶ XR 디바이스 ▶ 증강현실 안내맵 ▶ 실감 콘텐츠	 건설 ▶ 현장 안전관리 로봇 ▶ XR 시뮬레이션 ▶ 건설장비 원격조작
네트워크 슬라이싱	- 한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가상망 생성 가능		
엣지 컴퓨팅* 연계 가능	- 지연시간을 줄이고 처리속도를 높이는 구조로 연계 쉬움		

\* 데이터를 기존방식대로 중앙서버로 보내지 않고, 사용자 또는 기기 가까운 곳(엣지, Edge)에서 즉시 처리하여 지연시간 최소화

# KICI Insight

- 5G 특화망은 특화망은 기업 생산라인·서비스 전용으로 운용되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 기기를 안정적으로 제어·암호화 하여 사용 가능
- 또한 수요기업 또는 사업자가 건물·시설·토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5G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으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음
  - 서울을 비롯한 76개 지역에 37개의 공공·민간 사업자(82개소, '24년말 기준)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물류, 의료, 철강, 공장,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



- 또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5G 이음 특화망 글로벌 시장규모는 '30년 약 418억 달러로 연평균 49.7% 성장 전망되며,<sup>5)</sup> 국내는 시장 규모 및 도입 속도는 글로벌과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디지털 전환 본격화 시 수요가 급증 될 것으로 분석<sup>6)</sup>
- 국내 5G 이음 특화망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30년 약 2조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5G 특화망 네트워크 구축, 제공 서비스 판매 등을 포함한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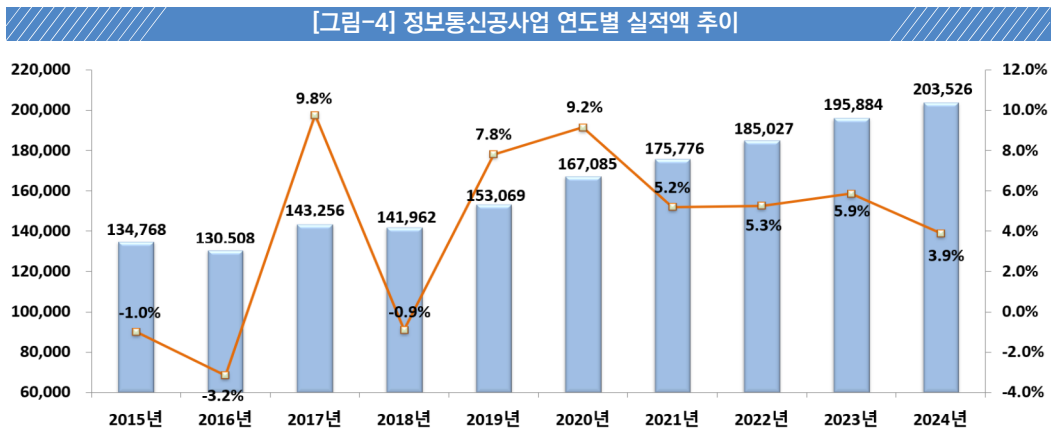
5) "이중헌 HFR모바일 대표 "세계 5G 특화망 시장 10% 점유 목표", 전자신문(2024)

6) "[이음5G 현황] 확산 한계치 도달?... "DX본격화 되면, 수요 급증", 디지털데일리(2025)

### 3. 정보통신공사 2026년 경기 전망

#### 가.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분석

- ▣ 정보통신공사업 연간실적은 '15년 13조 4,768억원에서 '24년 20조 3,52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4.3%의 성장세를 나타냄
- 공사업 실적은 '16년에는 '15년 대비 -3.2%까지 떨어진 바 있으며, '18년도 또한 하락하였다가 '21년부터 꾸준히 약 3%대 이상의 성장률 유지 중
  - '15년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들의 LTE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이 거의 완료되면서 관련 투자 감소가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16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IT인프라와 이동통신설비 구축 포화에 따른 물량 감소가 전체 실적 하방요인으로 작용
  - '19년부터 정부·민간에서 투자 추진한 5G 기술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수요가 급증, 공사 실적 또한 크게 향상됨
  - '또한 5G, IoT, 클라우드 컴퓨팅 뿐만 아니라 양자암호통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업계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3년과 '24년은 각각 19조 5,884억원, 20조 3,526억원의 실적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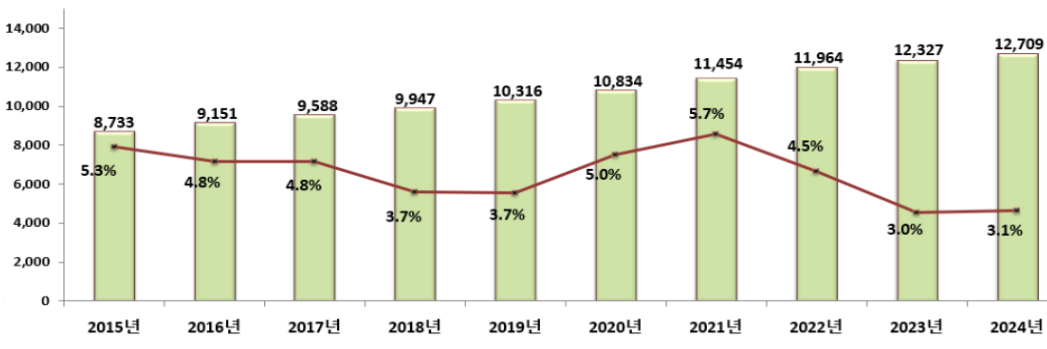
# KICI Insight

☐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최근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년 전국 8,733개사에서 '24년 12,709개사로 연평균 약 4.3%씩 증가

디지털 전환 및 AI 산업 추진 등 ICT 관련 사업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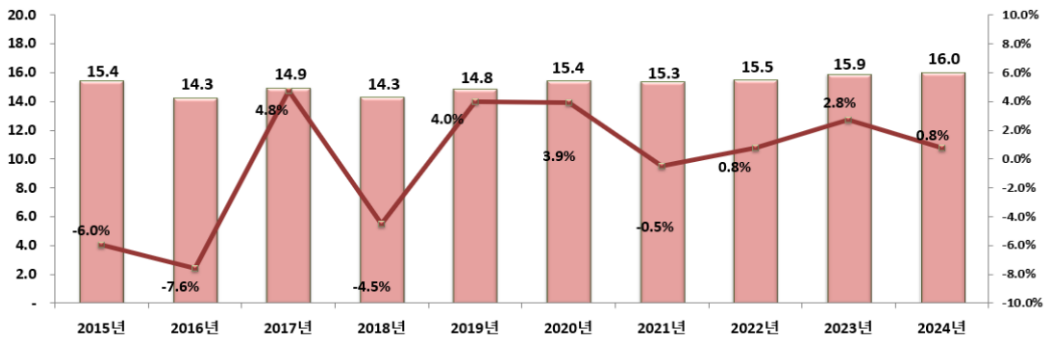
[그림-5] 정보통신공사업 연도별 업체수 추이



☐ 정보통신공사업체당 평균실적액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등·하락세를 보이다가, '22년부터 성장세로 나타났으며, '24년은 '23년 대비 0.8% 상승한 약 16.0억원으로 집계됨

○ 2016년과 2018년의 실적 하락은 국내 경기 둔화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 감소와 같은 외부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4년의 경우, AI 등 ICT 분야 신산업이 활성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업체당 평균 실적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6] 정보통신공사업 연도별 평균실적액 추이



㉔ 시공지역별 공사실적액의 경우, 경기(23.8%), 서울(22.3%), 인천(5.6%) 순으로 수도권 지역 실적이 전체 과반이상(51.7%) 차지

○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경북(5.4%), 경남(5.0%), 충남(4.8%), 부산(4.4%), 전남(4.3%), 강원(4.0%), 충북(3.6%), 대전(3.5%), 대구(3.4%), 전북(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지역은 2% 미만의 실적 비율 차지

- 최근 3년간('22~'24년) 시공지역별 공사실적 비율을 비교해 본 바,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 전체 공사실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경북 지역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4] 최근 3년('22~'24년)간 시공지역별 공사실적 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2022	214 %	43 %	38 %	56 %	24 %	37 %	15 %	14 %	215 %	40 %	33 %	47 %	31 %	43 %	50 %	47 %	13 %	11 %
2023	213 %	42 %	40 %	59 %	19 %	37 %	17 %	16 %	238 %	40 %	32 %	47 %	30 %	45 %	51 %	48 %	13 %	12 %
2024	223 %	44 %	34 %	56 %	18 %	35 %	18 %	10 %	238 %	40 %	36 %	48 %	33 %	43 %	54 %	50 %	11 %	09 %

## 나.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전망 예측 방법

㉔ 정보통신공사업의 연도별 실적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차년도 실적을 전망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방법 중 하나인 ARMA 모형을 사용

○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값을 예측하거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 주로 사용

○ ARMA 모형은 AR(자기회귀과정모형)모형과 MA(이동평균모형) 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데이터의 과거 값을 기반으로 현재나 미래의 값을 예측

- AR모형(자기회귀, Autoregressive)은 이전 시점의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가정하여, 과거 값들에 대한 회귀로 미래 값 예측을 예측하는 방법

- MA모형(이동평균과정, Moving average process)은 잔차(Residual)가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현재의 시계열을 설명하기 위해 오차항의 과거값을 모형에 포함하는 방식

[그림-7] ARMA 모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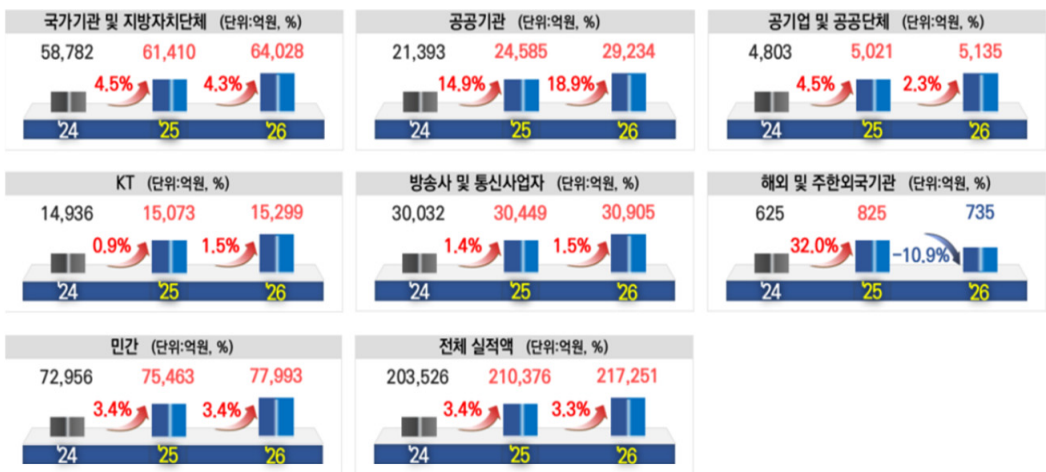
<p><b>1. ARMA 모델 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Auto-Regressive, 자기회귀)와 MA(Moving Average, 이동평균)로 구성</li> </ul>	<p><b>2. 모델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흐름에 변화하는 데이터(주식, 날씨 등)는 평균만 구해서는 예측 불가, 시간 패턴 반영 필요</li> <li>- 시간의 규칙성을 찾아 예측치에 반영</li> </ul>
<p><b>3. AR 모델 이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 오늘 날씨를 어제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어제 시간대별 날씨 데이터 대비 평균비율을 반영하여 예측</li> <li>- AR만 사용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예측치 산출</li> </ul>	<p><b>4. MA 모델 이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 오늘 날씨 예측이 어긋났다면, 어제와 오늘날 오차를 참고해 오늘 예측을 보정</li> <li>- 데이터간 오차를 나열 조합하여 예측치 보정</li> </ul>
<p><b>5. ARMA = AR+M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데이터간 흐름을 분석하고, 과거 예측 오차를 활용/보정해서, 정확도 높은 미래 값 예측</li> </ul>	

## 다.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전망 분석 결과

☞ 최근 20년간의 업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적을 분석, 차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전망치를 도출

○ 시계열 분석결과 '25년은 '24년 실적 대비 3.37% 증가한 21조 376억원, '26년은 '25년 추정치 대비 3.27% 증가한 21조 7,251억원으로 추정되며, '23년 실적에 이어 증가세로 나타남

[그림-8] 정보통신공사 부문별 실적액 추정치



- 주요 발주기관 실적의 경우 민간,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 통신사업자 순으로 점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사별로 5G특화망과 인공지능 사업, AI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에 긍정적이고, AI 및 디지털 미디어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인해 기간통신망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신축, 서버·스토리지 증축 등의 신규 공사 물량 또한 계속 발주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실제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자료와 그간의 경기전망 추정치 비교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음

[표-5] 정보통신공사업 연도별 실적 및 경기전망치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제 실적치	141,962	153,069	167,085	175,776	185,027	195,884	203,526	-	-
경기 전망치	125,679	139,706	142,213	-	-	194,275	202,634	210,376	217,251
실행율 7)	88.5	91.3	85.1	-	-	99.2	99.6	-	-

## 4.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전망과 정보통신공사업 및 유관산업 현황을 통해 공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공사업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 차년도 전체 실적 및 주요 발주기관 실적을 전망
- '25년, '26년의 공사실적은 각각 전년 대비 약 3.37%, 3.2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내 여러 산업부문별 이슈들을 검토해본 바, 낮은 성장률과, AI에 몰두되어 있는 정부 예산,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요인들은 공사업계의 경기에 긍정적이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건설산업 실적과 약 1~2년정도 일정한 시차를 보이고 있어, '24년 건설산업의 경기는 '25·'26년도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7) 실적치가 전망치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100이면 일치률, 100보다 적을수록 일치정도가 적음을 의미함

- ☞ 또한 미국발 관세 강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국내 경기 악화 지속 등의 여러 요인들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에, 정보통신공사업 시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과 ICT 관련 산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후,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
- (인공지능) AI는 SW 개발·운영 중심의 "응용 서비스"에 가까워 공사로 직접 발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AI 구동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특화망 구축 및 유지보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데이터센터) 고도화된 네트워크, 서버랙, 통신제어장치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영역이며,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고도화된 광케이블 포설, 네트워크 장비 설치 기술을 확보해야 함
- (이음 5G특화망) 5G특화망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의 필수 요소이며, 특정 지역에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전용 5G 네트워크로 별도의 설비와 장비 구축이 필요하기에 공사업체들은 신규 공사 물량에 대한 관심 필요
- (양자암호통신) 현재는 기존 통신망에 양자키분배(QKD) 장비 설치 또는 양자암호 변환 솔루션 추가 등 기존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업계 신규 발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지능형 CCTV)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AI 기반 지능형 CCTV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폴, IoT 센서 설치 등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지자체의 도시형 재난대응 전략·정책을 파악하여 수주전략을 모색해야함
- (스마트 농업) 스마트형 수직농장 뿐만 아니라 지능형 관제 시스템 및 IoT 센서 기반의 노지 개발 활성화인해 농장 및 논·밭은 자율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공사가 네트워크·전송설비 중심 구조에서 통합제어·AI분석 기반으로 전환되기에 이에 대한 시공분야 변화를 인식, 관련 수행능력제고 필요

# KICI Insight

주제2

## 2026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주요현황과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20
2. 2026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주요 현황	22
3. 202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주요 현황	27
4. 결론 및 시사점	29

2026년 적용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주요 현황과 시사점

원가관리실 김영삼 수석연구위원, 김현진 책임연구위원, 임성진 연구원, 정재현 연구원 / yskim@kici.re.kr



### 1. 배경 및 목적

☐ ICT 융합 중심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

○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따라 국내 경제 여건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상승 등 미래 경제 불안정 등 속에서 불확실한 경제성장 예상

- 이를 극복하기 위한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ICT 융합 중심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이를 뒷받침할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

○ 정부도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

\* (25.2.14.) 1차 TF회의 진행, 행정안전부 주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핵심자산으로 요구되는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글로벌 견적능력 배양을 위한 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제정·보급이 중요

☐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마련 및 제시 필요

○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및 시공 상황에 부합하는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마련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공사비 산정 능력 강화가 필요

-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정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 활성화의 핵심 요소
  - 공공부문 공사실적 금액은 전체 20.3조원 중 8.5조원(42.4%) 차지('24년 기준)
- 따라서 「정보통신공사법」 제24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1] 정보통신공사 공사원가 산정기준 연혁

구분	항목
1995. 7월	국가계약법령에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근거 마련
2004. 1월	국가조달업무에 건설부문 실적공사비 적용
2011. 5월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3. 3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5. 3월	실적공사비 제도 →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변경
2016. 7월	정보통신부문 공사원가 산정기준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8. 1월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 발표

☞ 2026년도 적용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시장혼란 최소화

- 표준품셈 총 45개항(제정 3개 항목, 개정 20개 항목, 용어정비 22개 항목) 제·개정
  -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 위반단속장비, 하천 영상수위관측설비 등 현장 점검·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품셈을 신설함.
-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666개에서 89개 삭제, 69개 제정한 646개 단가 발표
  -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계약내역서에서 추출한 신규 표준시장단가 69개 공종 제정

## 2. 2026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주요 현황

### 가. 표준품셈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적정 공사비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공종별 단위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품량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내 IC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시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 정보통신 공사업체 (13,000여개)의 육성·발전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지정받아 운영·관리 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제·개정
  - \* 정부·공공기관·학계·시공업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포함
  -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 및 신규 융·복합 공종을 반영한 표준품셈 제정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추진하며, 1장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각 공사종류에 따라 총 13장, 642개 항목으로 구성

[표-2] 2026년도 적용 표준품셈 항목 현황

구분	항목 수	구분	항목 수
제1장 공통사항	54개항	제8장 네트워크설비공사	59개항
제2장 관로·전봇대공사	27개항	제9장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109개항
제3장 배관공사	17개항	제10장 해상·항공설비공사	52개항
제4장 통신케이블공사	44개항	제11장 정보통신전원설비공사	27개항
제5장 교환설비공사	3개항	제12장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23개항
제6장 전송설비공사	13개항	제1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	125개항
제7장 무선·방송설비공사	88개항		
총 13장		642개항	

## 나. 표준품셈 제·개정 추진 현황

☞ [1. 제·개정 제안 모집] 주요 발주기관 총 6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개정 제안 모집 추진

○ 정부(54개), 지자체(280개), 공공기관(92개), 교육청(193개) 총 6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 모집 추진

- 발주기관(8개항), 시공업계(44개항), 연구원(13개항) 등, 총 66개 항목 제·개정 수요 제시

[표-3]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 모집 결과

구분	제정 제안	개정 제안	삭제 제안	합계
발주기관	-	8개항	-	8개항
시공업계	9개항	35개항	-	44개항
관리기관(연구원)	1개항	12개항	-	13개항
기타	-	1개항	-	1개항
합계	10개항	56개항	-	66개항

☞ [2. 현장 실사 추진] 제안 모집 기관 등을 통한 현장 섭외 및 실사 추진

○ 총 5개 공종, 11 개소 실사 추진

[표-4] 공종별 현장실사 개소 수

구분	실사 개소
하천 영상수위관측시스템 점검	2개소
네트워크 설비(공통) 중 PC 설치	2개소
종합정보 플랫폼 표출장치	3개소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
위반단속 장비(과속, 신호위반, 전용차로, 주차) 점검	2개소

☑ [3. 심의위원회 심의] TF를 통한 표준품셈 제·개정(안) 검토 및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제·개정(안) 심의

- 발주·시공·감리 등 업계 이해관계자 중심 18인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총 3회의 표준품셈 개선 전문가 TF를 거쳐 표준품셈 제·개정(안) 검토
- 정부·공공기관·학계·업계의 전문가 각 17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총 45개항 제·개정 확정

[표-5]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회의 내용
TF	1차	'25. 3.27.	'25년도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 결과 주요내용 검토
	2차	'25. 7. 4.	표준품셈 제개정 개정(안) 중간 검토
	3차	'25.10.29.	'26년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안) 검토
	4차	'25.12.18.	'26년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결과 보고
위원회	전문위원회	'25.11.25.	'26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안) 전문분야별 세부내용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25.12. 4.	'26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안) 정책적 사항 심의·의결

## 다. 표준품셈 제·개정 주요 내용

총 45개항(제정 3개 항목, 개정 20개 항목, 용어정비 22개 항목) 제·개정

☑ 정보통신설비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신설 및 위반단속장비 점검, 하천 영상수위 관측시스템 점검 품셈 제정

○ (9-4-45)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장에 도입 중이나 품셈이 존재하지 않아 신설, 모니터링 시스템, 전원함체, 메인함체, 운영프로그램 및 최종시험으로 구성

○ (13-7-1-7) 위반단속장비(과속, 신호위반) 점검

- 위반단속 장비 점검 품셈 부재에 따른 점검 품 신설, 단말기(단위 : 대) 당 점검품 적용 및 구조물점검, 검지부 점검, 제어부 점검 및 성능점검 등 점검 항목에 따라 품셈 제정

○ (13-8-4-3) 하천 영상수위관측시스템 점검

- 하천 영상수위관측시스템 점검 수요에 따른 신설, 하천 영상수위관측시스템(단위 : 대) 점검품 적용, 외관 점검, 주장치 점검, PC 및 서버 점검 등 품에 포함되는 공정을 포함

☞ 품셈 적용시 공정에 대한 명확화 및 품셈 현실화를 위한 20개 항목 개정

- 품셈에 포함된 공정과정, 해설항 명확화, 품셈 현실화 진행 및 품셈 내에서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품셈 적용근거 마련

[표-6] 2026년도 적용 표준품셈 개정 항목-1

구분			주요 내용
1.	1-2-2-7	건물층수별 할증률	층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준 마련
2.	1-2-2-14	기타 할증률	해설항 명확화
3.	1-1-27-1	안전시설	신설직종(교통정리원)에 따른 직종구분 및 해설항 개정
4.	1-3-4	금액의 단위 및 표준	설계서 금액의 단위 및 표준 명확화
5.	1-4-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장비명 현행화
6.	2-4-5	조가선	조가선 자재 명칭 현행화
7.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사용시간 산정기준 해설항 명시
8.	4-2-1	동축케이블 포설	5C 이하 동축케이블 적용 방법 명확화
9.	4-2-2	커넥터	5C 이하 커넥터 적용 방법 명확화
10.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HFIX, HIV 등 전선 적용근거 마련
11.	7-9-5	무선 AP(Access Point)	무선 AP 분류 체계 명확화
12.	7-9-6	무선LAN컨트롤러	무선LAN컨트롤러 공종명 명확화

[표-7] 2026년도 적용 표준품셈 개정 항목-2

구분			주요 내용
13.	7-12-5	광 송수신기 등	단자함 설치시 근거 마련
14.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허브 구분 명확화, SFP 모듈 근거 마련, 단말기(PC) 품량 현행화
15.	8-2-2-1	주방 TV	부착용 구멍 타공 근거 마련
16.	8-2-2-2	주방 라디오(Radio)	부착용 구멍 타공 근거 마련
17.	9-4-8-1	종합접수대 시스템	KVM Switch 설치 적용 근거 마련
18.	10-2-1	공통적용	선박에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시 적용 근거 마련
19.	11-7-5-1	차단기 및 개폐기 등	공종 명확화
20.	12-2-4	열차행선 안내게시기	열차행선 안내게시기 고도화에 따른 종합정보 플랫폼 표출장치 개정

□ 표준품셈 용어 표준화 등 정비를 위해 22개 항목 개정

○ 공히 등 일본식 공문체 표현, 전공 등 불명확한 표현 개정

### 3. 202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주요 현황

#### 가. 표준시장단가 개요

-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계약 내역서 분석 등을 통한 단가 제·개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18.1.1일 시행)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지정 받아 운영·관리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를 제·개정
  - \* 정부·공공기관·학계·시공업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포함

설계 및 계약 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 및 신규 용·복합 공종을 반영한 표준시장 단가 제정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추진

#### 나.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추진 현황

- ☑ 정부 및 공공기관(24개), 지자체(242개), 지방 개발·도시공사(23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총 2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계약내역서 수집 추진
- 2025년 상·하반기 내역서 수집 추진 결과, 설계 내역서 513건, 계약내역서 346건으로 총 859건 수집

[표-8]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기관별 내역서 수집 건수

자료제출 기관	내역서 수집 건수
정부 및 공공기관	583건
지방자치단체	57건
지방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25건
기타(협회 등)	194건
합 계	859건

## ☐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개정

- 정부·공공기관·학계·업계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총 646개 단가 발표

[표-9]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심의 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회의 내용
위원회	전문위원회	'25.6.11.	'25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심의(안) 의결 및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25.11.4.	'2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심의(안) 의결 및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심의위원회	'25.6.19.	'25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심의(안) 의결
		'25.11.13.	'2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심의(안) 의결

## 다. 202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주요내용

### ☐ 총 646개 단가(신규단가 69개 제정, 기존단가 666개 중 89개 삭제) 발표

- 기술적 환경 변화, 사용자재 변동, 단가의 시장 활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단가 제·개정을 통해 구내통신(공동주택) 분야 264개, 구내통신(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분야 223개, 통신선로분야 63개, 정보제어 및 보안분야 96개 단가 발표

[표-10] 연도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단가 수

분야		발표 단가 수	
		2025년 하반기 적용	2026년 상반기 적용
구내통신분야	공동주택	267개	264개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219개	223개
통신선로분야		60개	63개
정보제어 및 보안분야		89개	96개
합계		635개	646개

☐ 분야별 신규 발표 단가 / 세부 내용 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구내통신(공동주택) 분야 : 공동현관기(얼굴인식 기능), 비디오폰, 광케이블 시험, 옴니안 테나, Dead Bolt 등 26개 단가 신규 발표
- 구내통신(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 분야 : 스피커, 접지선,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콘센트 등 17개 단가 신규 발표
- 통신선로 분야 : 광접속함체, OPGW, 항공장애표시구 등 11개 단가 신규 발표
- 정보제어 및 보안분야 : 초음파유량계, 통화검용 비상벨, 오토리프트, PLC모뎀 등 15개 단가 신규 발표

## 4. 결론 및 시사점

☐ 2026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의의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환경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인 개정이며, 공종별 세부 항목의 재구성과 단가 조정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기반의 강화를 도모함

☐ 선제적인 신기술·신공법 반영 및 업역 확대 기반 마련

- 제·개정된 공사비 산정기준을 통해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필요한 산정 근거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분야 공종 적용 기반을 확충하여 업역 확대를 지원함.

☐ 건전한 정보통신공사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 및 합리적인 국가예산의 집행 도모

-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며, 공사비 산정 기준의 개선을 통해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KICI Insight

주제3

##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국내·외 실태조사

1. 국내 실태조사	32
2. 해외 실태조사	43
3.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43

##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국내·외 실태조사

디지털안전관제센터 김민주 선임연구원 / min@kici.re.kr



### 1. 국내 실태조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정책개선, 환경정비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적 분석, 실태조사 및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등 연구 추진

#### 나. 연구 주요 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분석

- 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실적 Data\*를 제공 받아, 연구원에서 실적 신고 규모, 업체당 실적 신고 공종수, 견업 여부별 실적 등 분석하여 재가공
- \*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신고액 기준이며,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부분 발취

##### ☐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진행

- 매년 1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대상 협회 및 연구원 홈페이지 QR(카드뉴스) 조사  
- 업계의 일반현황(사업장 규모, 사업분야 등), 경영환경 실태(경영일반, 자금조달 방법 등), 운영 실태(수주방법, 입찰금액 산정 등), 하도급 실태(실행가격,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필요한 정책, 분리발주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구성

### ㉔ 정보통신공사업 심층면접 진행

- 각 시·도회 방문을 통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심층 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 추진\*

\* 2025년에는 광주·전남도회, 대구·경북도회, 부산·울산·경남도회 방문,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부분 발췌

-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시장 환경, 경영 환경,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면접·자문 형식으로 진행

## 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㉔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분석

- (1. 실적 신고 규모)

- 실적 신고한 정보통신공사업 11,336개사의 업체당 평균 실적은 17.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억 원~3억 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가 전체의 약 15.2%로 가장 많았음. 10억 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전체의 64.2%,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업체는 35.8%로 나타남

[표-1]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신고 규모-1

실적 신고액	신고 업체수	비율
무실적	1,248	11.0%
3천만원 미만	332	2.9%
3천만원~5천만원 미만	235	2.1%
5천만원~1억원 미만	527	4.6%
1억원~3억원 미만	1,722	15.2%
3억원~5억원 미만	1,237	10.9%
5억원~7억원 미만	977	8.6%
7억원~10억원 미만	1,004	8.9%
10억원~15억원 미만	1,059	9.3%

[표-1]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신고 규모-2

실적 신고액	신고 업체수	비율
15억원~20억원 미만	669	5.9%
20억원~30억원 미만	771	6.8%
30억원~40억원 미만	422	3.7%
40억원~50억원 미만	241	2.1%
50억원~60억원 미만	201	1.8%
60억원 이상	691	6.1%

○ (2. 실적 신고 공종 유형)

- 실적을 신고한 업체 중 구내통신설비공사가 21.7%,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가 19.4%, 통신선로설비공사가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2] 정보통신공사업 업체당 실적 신고 공종 유형

구분	신고 공종수	전체 신고 업체수 대비 비율
구내통신설비공사	5,748	21.7%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5,122	19.3%
통신선로설비공사	3,247	12.3%
유지보수공사	3,119	11.8%
정보망설비공사	2,621	9.9%
정보매체설비공사	1,238	4.7%
방송국설비공사	1,083	4.1%
기타	4,283	16.2%

o (3. 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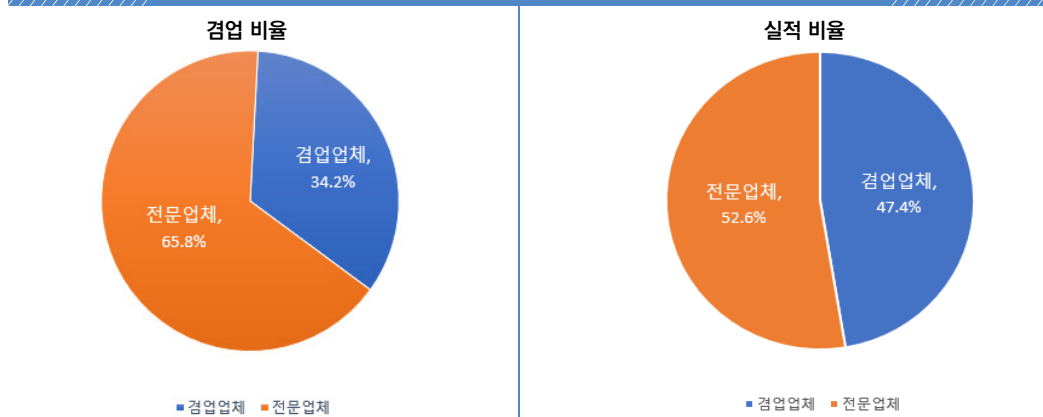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신고한 11,337개 중 약 34.2%가 겸업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업업체의 실적은 전체 실적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 작년(24년 조사)과 비교하여 업체수는(11,084개→11,337개로 253개) 증가하였으나, 겸업업체의 비율(34.4%) 및 , 전체 실적(48.3%)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표-3] 정보통신공사업 겸업 여부별 실적

구분	겸업업체	전문업체	합계
신고 건수(A)	3,879	7,457	11,336
비율	34.2%	65.8%	100.0%
실적 신고액(B) _단위(백만원)	9,639,568	10,713,044	20,352,612
비율	47.4%	52.6%	100.0%
업체당 실적 신고액(B/A) _단위(백만원)	2,485	1,436	1,795

- 겸업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수 비율은 겸업업체 34.2%, 전문업체 65.8%로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겸업업체와 전문업체의 실적 비율은 겸업업체 47.4%, 전문업체 52.6%로 단순 건수로 비교 시 겸업업체의 공사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1] 정보통신공사업 겸업 및 실적 비율



- 겸업 여부별 세부 실적은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실적 약 20.3조 원 중 구내통신설비공사가 4.6조원(22.8%)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4.2조원(20.9%), 통신선로설비공사 3.1조원(15.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실적 중 겸업업체가 전문업체 대비 ①통신선로설비공사, ②구내통신설비공사, ③이동통신설비공사, ④ 정보매체설비공사, ⑤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⑥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부문에서 실적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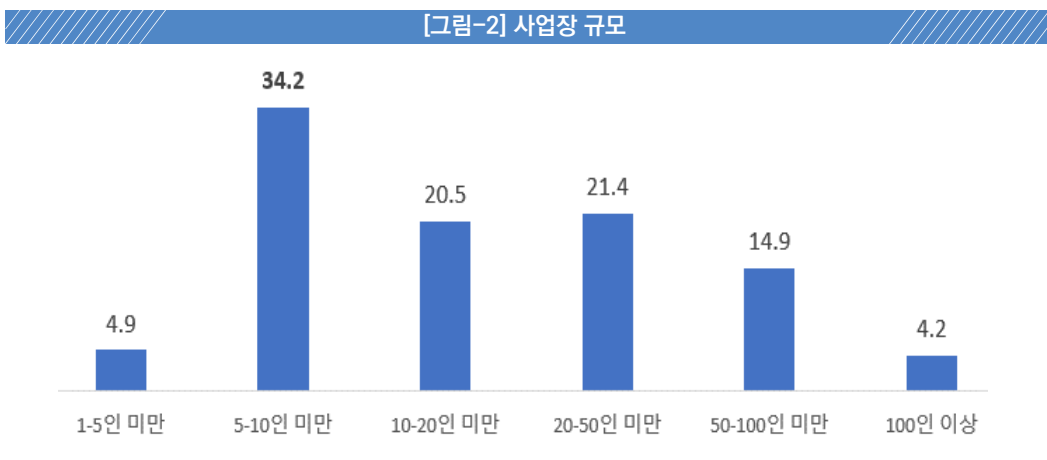
[표-4]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실적 대비 겸업 여부별 실적 구성 비율

세부 공종	겸업업체	전문업체	합계
통신선로설비공사	58.6%	41.4%	100.0%
교환설비공사	42.8%	57.2%	100.0%
전송설비공사	42.7%	57.3%	100.0%
구내통신설비공사	55.2%	44.8%	100.0%
이동통신설비공사	73.6%	26.4%	100.0%
위성통신설비공사	23.7%	76.3%	100.0%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4.0%	76.0%	100.0%
방송국설비공사	27.5%	72.5%	100.0%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23.5%	76.5%	100.0%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44.5%	55.5%	100.0%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40.2%	59.8%	100.0%
정보망설비공사	25.0%	75.0%	100.0%
정보매체설비공사	51.6%	48.4%	100.0%
공항, 항만통신설비공사	36.0%	64.0%	100.0%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84.7%	15.3%	100.0%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55.6%	44.4%	100.0%
유지보수공사	32.6%	67.4%	100.0%

## ☞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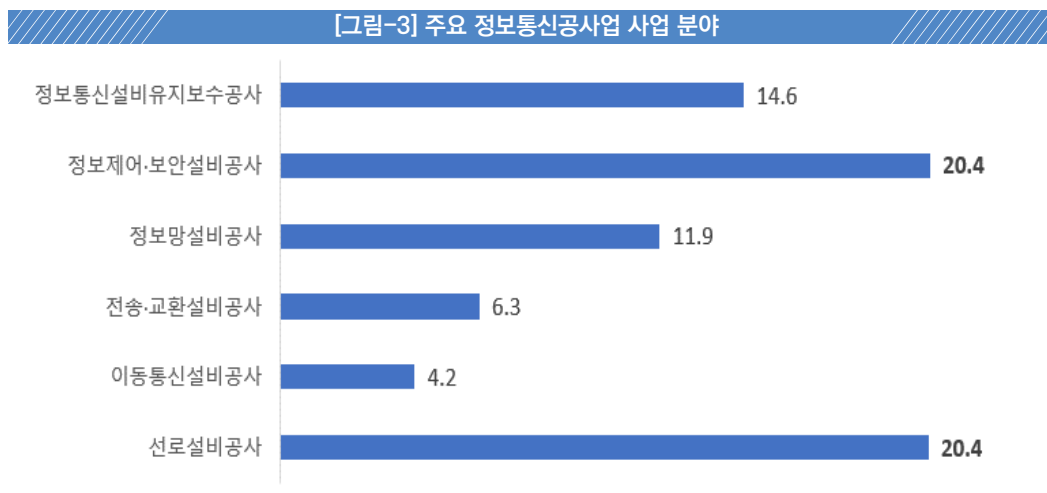
### ○ (1. 사업장 규모)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5~10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34.2%, 20~50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21.4%, 10~20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10인 미만 규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가 중소규모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2. 주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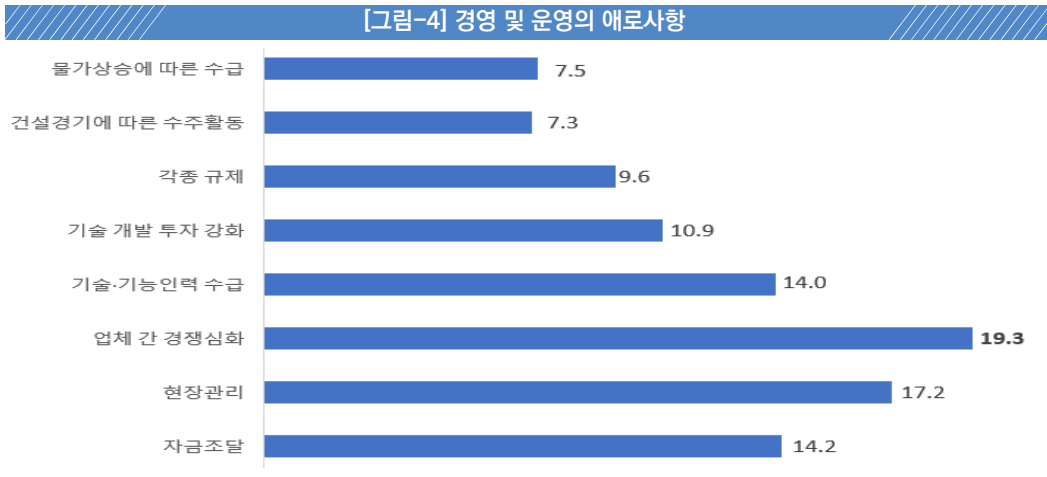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요 사업 분야는 선로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KICI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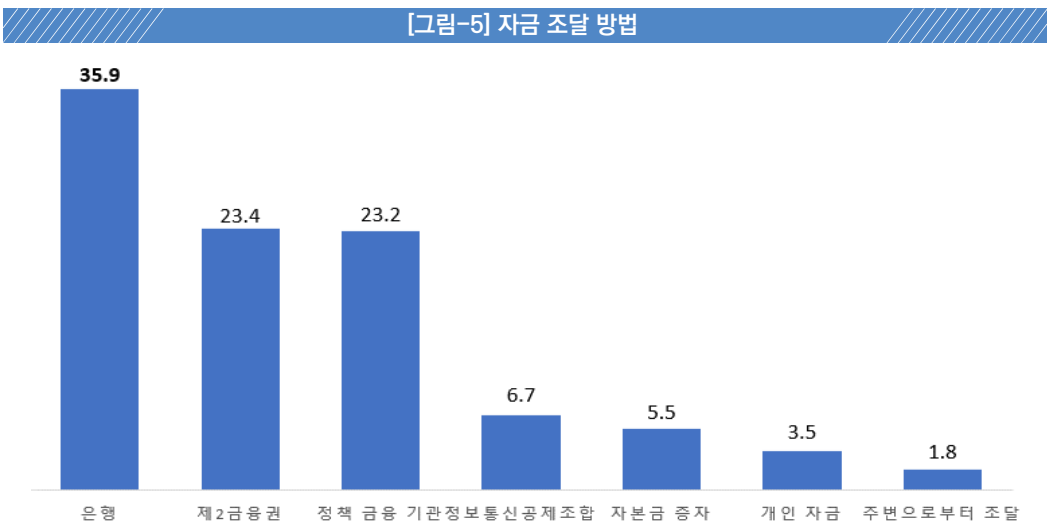
## o (3. 경영 및 운영의 애로사항)

-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업체 간 경쟁심화(19.3%)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 내 경쟁구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현장관리(17.2%), 기술·기능인력 수급 문제(14.0%) 등 인력·재정·운영 측면의 복합적인 애로사항도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음



## o (4. 자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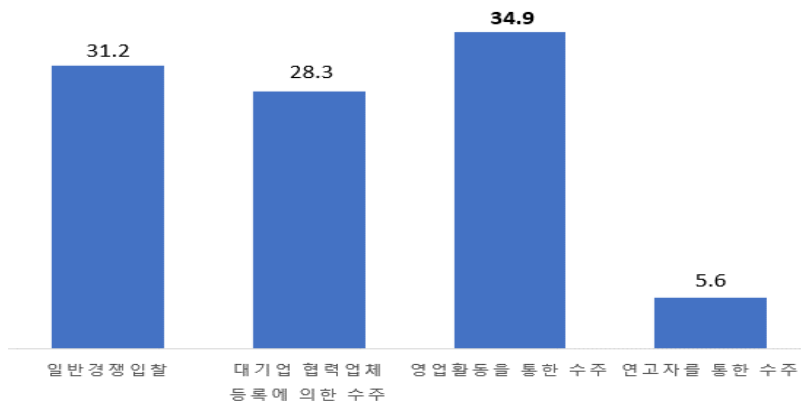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이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2금융권(23.4%), 정책 금융 기관(산업은행 등) 23.2% 순으로 나타남



o (5. 주요 공사 수주 방법)

- 정보통신공사 주요 수주방법에 대해 조사 결과, 영업활동(하도급 등)을 통한 수주가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업체들이 단순 입찰 참여뿐 아니라 지속적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연고자를 통한 수주(5.6%)는 가장 낮게 나타나, 개인적 관계나 인맥에 기반한 수주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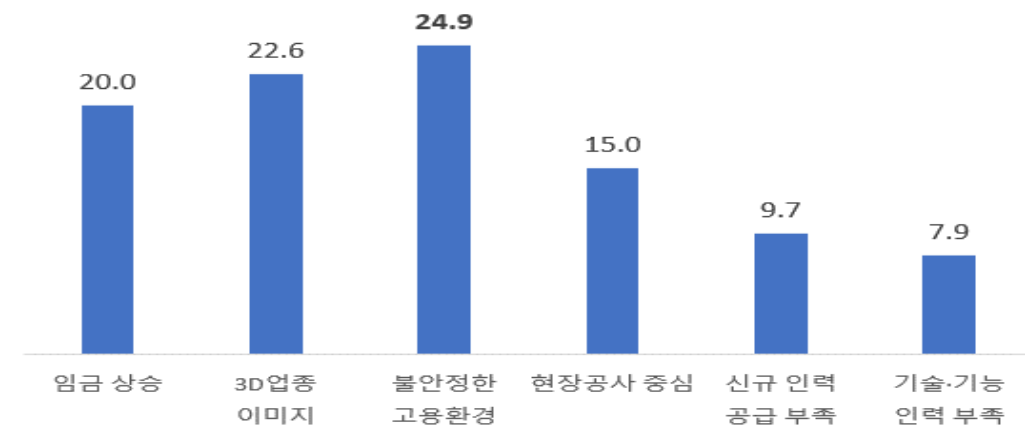
[그림-6] 주요 수주 방법



o (6. 인력 수급)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 고용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24.9%)이 가장 많았고, 3D업종 이미지(22.6%), 임금 상승(20.0%) 순으로 나타남

[그림-7] 기술·기능인력 고용에 있어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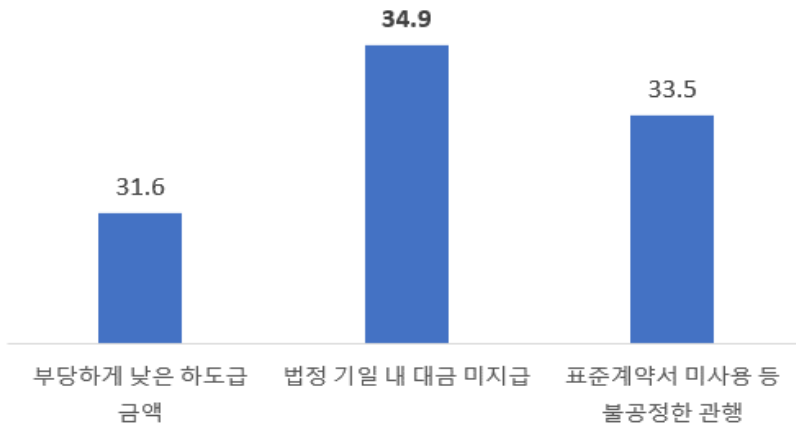


# KICI Insight

## o (7. 하도급)

- 하도급 거래의 애로사항으로 법정 기일 내 대금 미지급(34.9%),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불공정한 관행(33.5%),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31.6%) 순으로 분석됨
-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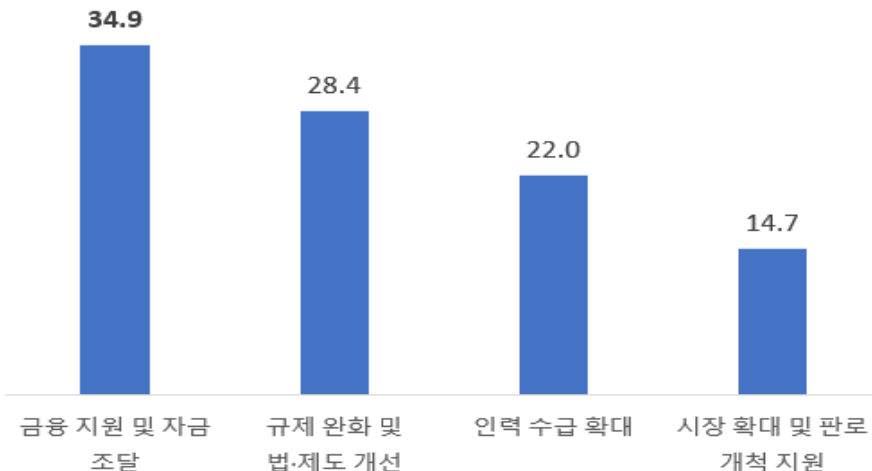
[그림-8] 하도급 거래의 애로사항



## o (8.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 지원 및 자금 조달(34.9%),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2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9]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



## ㉔ 정보통신공사업 심층면접조사




- '25년 심층면접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1개 시·도회 중 3개 시·도회(광주·전남도회, 대구·경북도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실시
- 심층면접 주제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시장 환경을 비롯한 경영 환경,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면접·자문 형식으로 진행

[표-5] 광주·전남도회 전문가 심층 면접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산업·시장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대기업 위주 정책 속에서 지역·중소업체 지원과 교육 필요</li> <li>- 대기업 중심 정책 구조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의 시공·유지보수 참여 제약</li> <li>○ 지역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AI·IoT 등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 필요</li> <li>- 현장 인력 고령화(40대 중후반 이상), 청년층 유입 부족</li> <li>-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술자·비기술자 임금 격차 축소로 인해 기술 인력 확보 어려움</li> <li>○ 자재비·노무비 인상 미흡, 통신자재(광케이블·UTP 등) 가격 현실화 필요</li> </ul>
경영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전 연령층 교육·지원 필요</li> <li>- 재직자 평생교육, 전문훈련센터, 지역 시 훈련 과정 등 지속적 교육 기반 부족</li> <li>- 지방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와 전문 교육기관이 사라지며 전문 인력 자체가 배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발생</li> <li>○ 표준품셈 현실화와 최저임금-물가 반영을 통한 임금 상향 필요</li> <li>- 인건비 지속 상승에도 표준품셈 등 제도 반영 부족</li> <li>-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임금 현실화-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다수</li> </ul>
제도 개선 사항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별 AI 시스템 도입 및 품셈 반영으로 제도·현장 개선 필요</li> <li>- AI 관련 품셈 조정, AI·IoT 기반 유지관리 확대 필요</li> <li>- 공정별 AI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안전성·자재 loss을 감소 기대</li> <li>○ 입찰·조달·등록제도 등의 제도 개선 필요</li> <li>-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무자격자 시공·불법 시공·담합 등 시장 왜곡 문제 심각</li> <li>- 간이형 중심제 폐지, 적격심사제 강화 등 공정성 확보 요구 증가</li> <li>○ 학교·공동주택 등 지역 현실 반영한 유지보수 제도 확대 필요</li> </ul>

# KICI Insight

[표-6] 대구·경북도회 전문가 심층 면접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산업·시장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인력 유입 저조와 기술 인력의 고령화로 숙련 인력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층의 기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공사비 등으로 이직률 높음</li> <li>- 현장 근무환경 개선·자격증 인센티브 등 인력정책 필요</li> </ul> </li> <li>○ AI·IoT·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산업 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기반 산업 수요 증가로 AI·IoT 기반 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으로 전환 필요</li> </ul> </li> <li>○ 공사비·하도급·발주 구조 개선의 필요성 증가</li> </ul>
경영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공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영 부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 현실화·표준단계제 도입, 공사비 검증제도 필요성 증가</li> </ul> </li> <li>○ 인력 수급 위기 심화(고령화·3D업종 이미지·청년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심화</li> <li>- 청년 인력 채용 지원사업 폐지 등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li> </ul> </li> <li>○ 중대재해처벌법·주 52시간 근무제 등 규제 강화로 경영 환경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법 강화로 문서관리·안전 관리 부담 증가,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 정책 요구</li> </ul> </li> </ul>
제도 개선 사항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미흡 및 제도 현실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보수·성능점검 기준에서 투입 인력 산정 기준 모호, 품셈 적용 여부 불명확</li> <li>-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적극 홍보 및 공공기관 유지보수 예산 확보 필요</li> </ul> </li> <li>○ 중대재해처벌법·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 절차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안 입법(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또는 탄력적 적용) 요구</li> </ul> </li> <li>○ 안전관리·AI·신기술 기반의 제도 개선과 홍보 체계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교육 및 SW 역량 강화, R&amp;D 및 신기술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필요</li> </ul> </li> </ul>

[표-7] 부산·울산·경남도회 전문가 심층 면접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산업·시장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 감소 및 시장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시장 위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시설 투자 위축</li> </ul> </li> <li>○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재편 (AI·데이터센터·무선 중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급증으로 광통신과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신기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li> </ul>

경영 환경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 과도한 안전관리 요구(과도한 장비 착용, 문서 중심 행정 등)로 생산성 저하  
- 현장 운영에 대한 과도한 서류 중심으로 문제 발생
- 인력 고령화, 전문인력 부족, 청년 유입 부진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 기술자 확보 어려워 정부의 젊은 인력 유입에 지원 노력 필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자재비·인건비 상승 대비 미반영된 낮은 발주금액으로 원가 과리 발생  
-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분야 발주물량 증대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발굴 요청

제도 개선 사항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 유지보수·점검 대가 기준과 실제 시장 대가 간 괴리로 제도 실효성 낮음  
- 권장하는 대가 산출 방식과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실제 대가 간 격차가 커 좁히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필요 및 부적절한 대가 지급으로 유지보수 점검의 품질 저하 우려
- ICT·정보통신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전문교육·자격지원 체계 필요, 고급 인력(석·박사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우대책 필요  
- 고급 인력에 대한 우대 제도가 미흡하여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현상 지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으로 고급 인력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 2. 해외 실태조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해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장 변화 파악, 해외진출 지원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실적 분석, 해외 실태조사 및 분석, 대륙별 해외진출 현황 조사 및 분석 등 연구 추진

### 나. 연구 주요 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적 분석

- 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실적 Data\*를 제공 받아, 연구원에서 해외진출 매출액, 해외진출 업체수, 해외 공사 수주 건수, 대륙별(국가별) 해외진출 실적 등 분석하여 재가공

\*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신고액 기준이며,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부분 발췌

##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실태조사

- 매년 1회, 해외진출 관련 경험이 있거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업계의 해외진출 현황, 유형, 지원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구성

## ☐ 대륙별 해외진출 현황

- 대륙별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ICT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진출 성공 사례, 진출 지원 기관 등을 조사(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현장 답사 등)하고, 업계 공유를 통해 해외 진출 장려 및 정보 공유

\*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진출 실적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대륙)-베트남(국가) 선정(시리즈로 매년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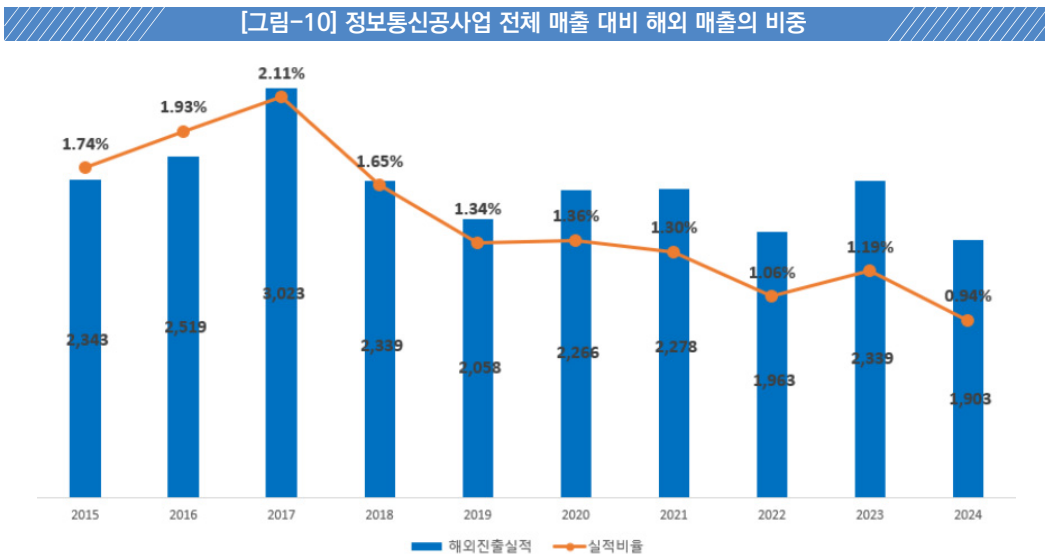
## 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실적 분석

- 해외진출 실적은 연평균 2,303억 원('15년~'24년) 규모로 시장 전체 실적 대비 1.46% 수준
  -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율은 약 1.4%로 업계의 해외 진출 시도를 위해 신규 분야 진출 전략 모색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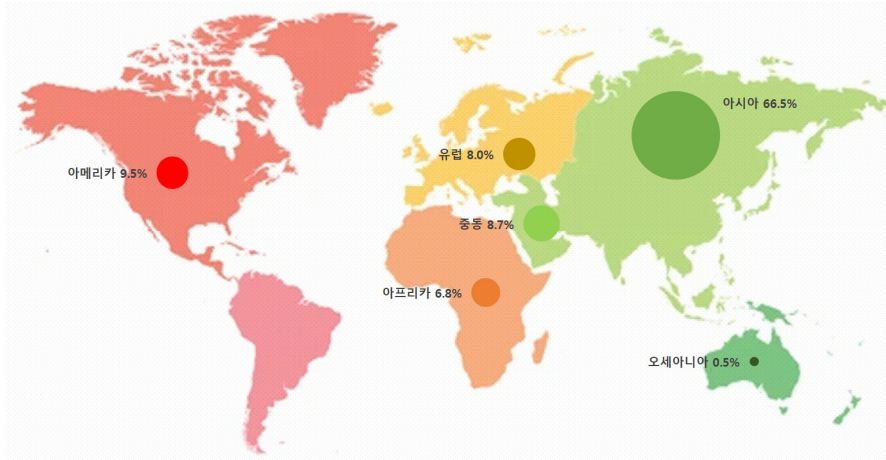
\* 전체 매출은 '15년(13조4,768억 원)에서 '24년(20조 3,526억 원)으로 연평균 4.7% 상승, 해외 매출은 '15년(2,343억 원)에서 '24년(1,903억 원)으로 연평균 -2.3% 감소

[그림-10]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의 비중



- 정보통신공사업의 대륙별('15년~'24년 기준) 해외진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 66.5%, 아메리카 9.5%, 중동 8.7%, 유럽 8.0%, 아프리카 6.8%, 오세아니아 0.5%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아시아 진출 비중이 높지만 점차 타 대륙으로의 해외 진출 비중이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

[그림-11] 대륙별 해외진출 분포 현황



- 국가별('20년~'24년 기준)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헝가리, 미국 등 타 대륙으로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7] 대륙별 해외진출 실적(상위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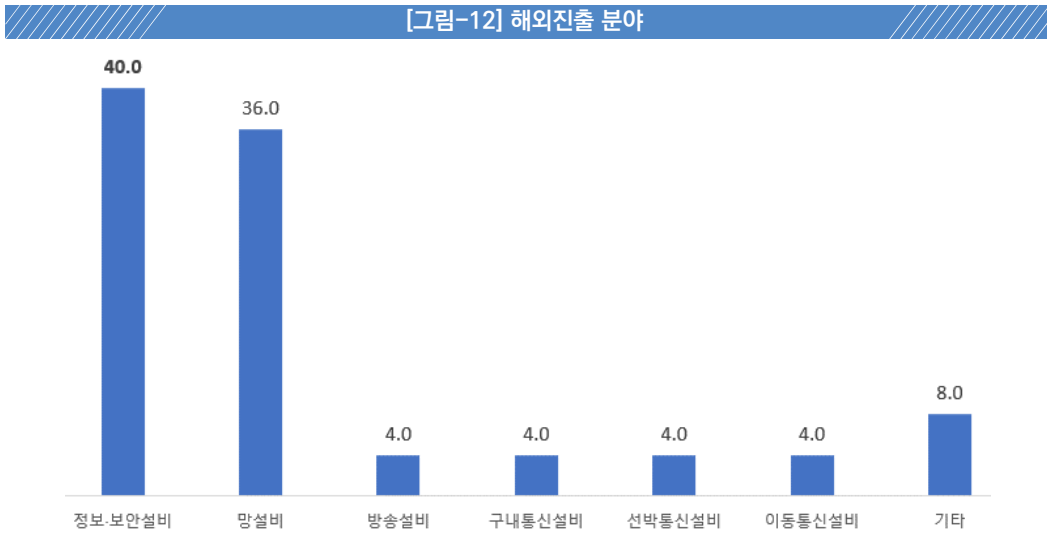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국가	실적
1	중국	363	중국	188	중국	212	중국	169	중국	194
2	베트남	242	베트남	85	인도	108	미국	109	미국	182
3	인도	44	인도 네시아	79	방글라데시	80	헝가리	97	싱가포르	130
4	헝가리	32	헝가리	79	베트남	80	인도 네시아	82	헝가리	82
5	미국	30	미국	58	인도 네시아	57	베트남	7.1	베트남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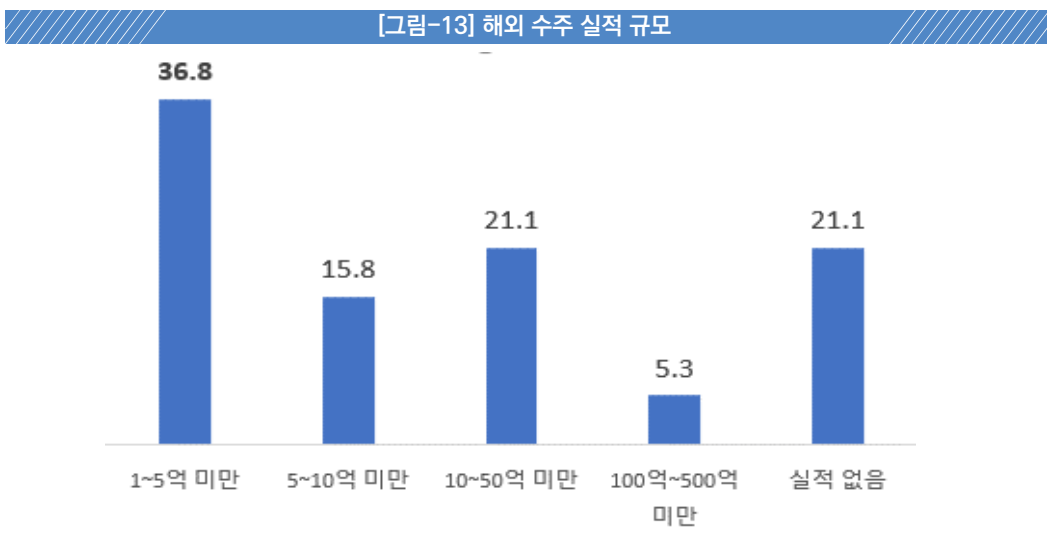
# KICI Insight

##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실태조사

- (1. 해외진출 현황) 주요 해외진출 분야로는 정보·보안설비(40.0%), 망설비(36.0%), 국내통신설비·방송설비·선박통신설비·이동통신설비(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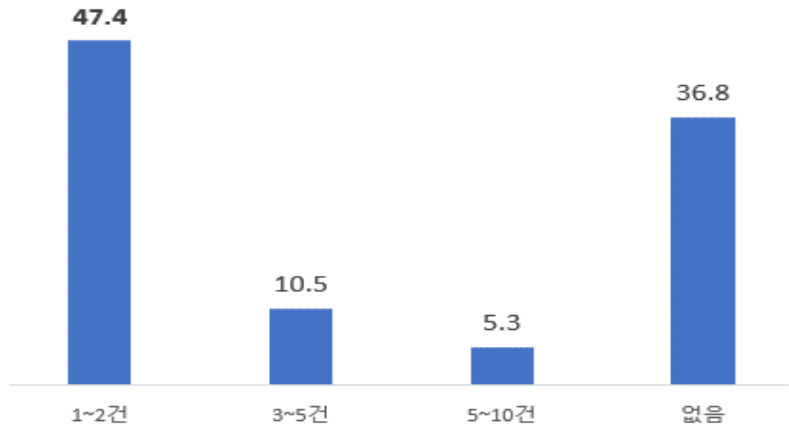


- (2. 해외 수주 실적 규모) 해외 수주 실적의 경우 1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10억 이상~50억 미만(21.1%), 5억 이상~10억 미만(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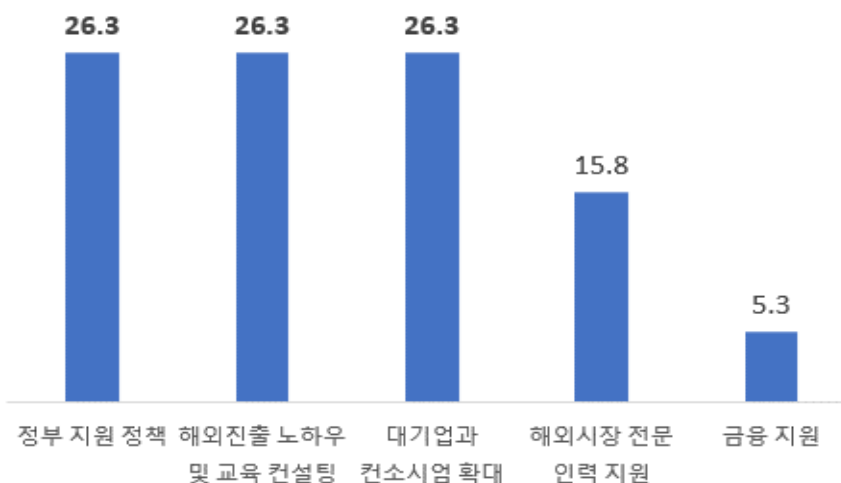
- (3. 해외 매출 건수)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매출건수의 경우 1~2건인 업체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건(10.5%), 5~10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외 매출 건수가 없는 경우 36.8%로 작년(41.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매출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14] 해외 매출 건수



- (4. 해외진출 시 가장 중요한 요인) 해외진출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해외진출 노하우 및 교육 컨설팅·대기업과 컨소시엄 확대·정부 지원 정책(26.3%)으로 나타남
  - 이는 해외시장 진출 시 사업 경험 부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15] 해외 진출 시 가장 중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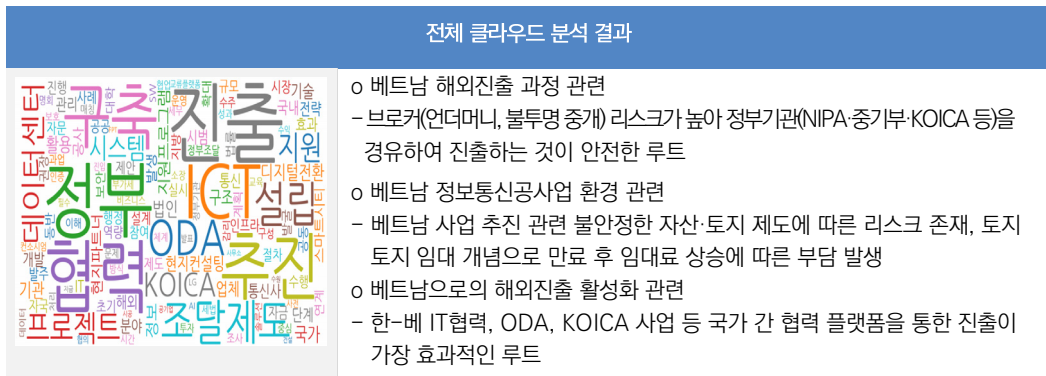


# KICI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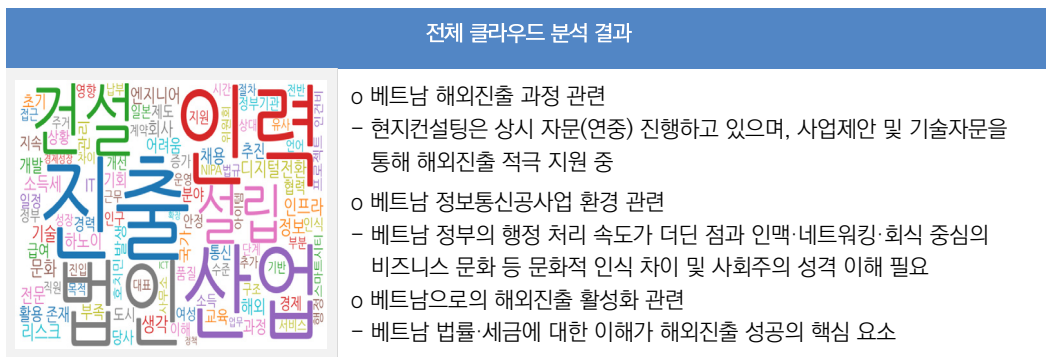
## ☐ 대륙별 해외진출 현황(아시아편\_베트남)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인구 구조의 젊음,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정부 주도의 개방정책 등으로 꾸준히 성장 중
  - 베트남 ICT 산업의 '23년 매출액은 약 1,4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문화적인 환경 역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디지털 친화적 세대로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AI 기술 도입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
  -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발표하며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2021~2030) 및 사회경제개발계획(2021~2025) 발표
  - 이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관 및 기업에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 진행 및 자료 수집
    - \* (기업) FINGER VINA 하노이 사무소, 두올테크 베트남 하노이 법인, (기관) KOICA 하노이 사무소, 세계한인경제 무역협회(OKTA) 하노이지회, NIPA 하노이 IT 지원센터

[표-8] 기업 관점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9] 기관 관점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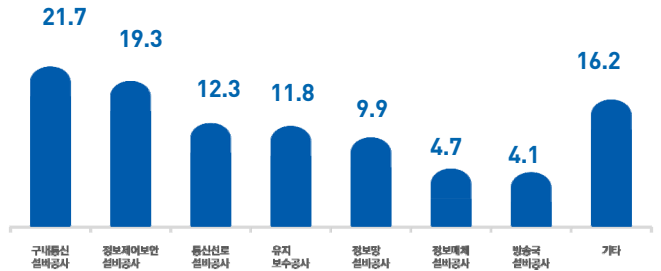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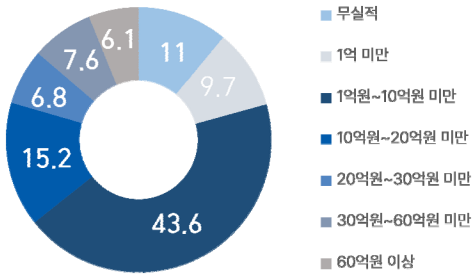


### 3.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국내 실태조사

##### [주요 국내 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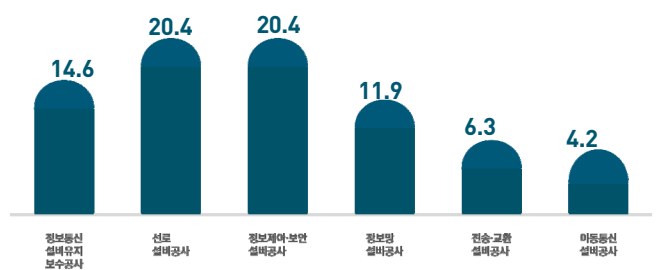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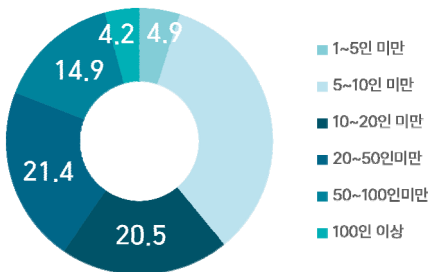
-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신고 규모
- 2024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업체당 실적신고 공종 유형 (단위: %)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데이터제공, 연구원재가공

##### [주요 국내 실태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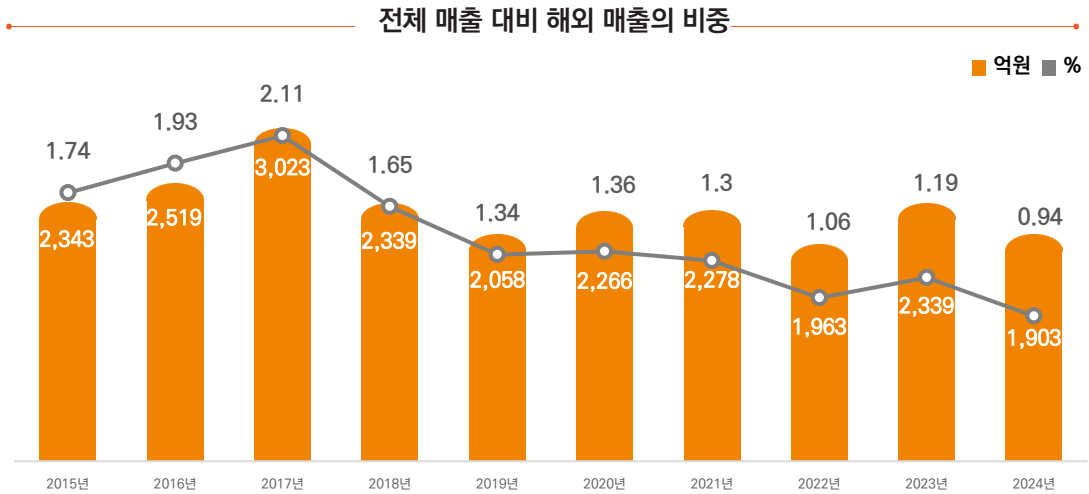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규모
- 주요 정보통신공사업 사업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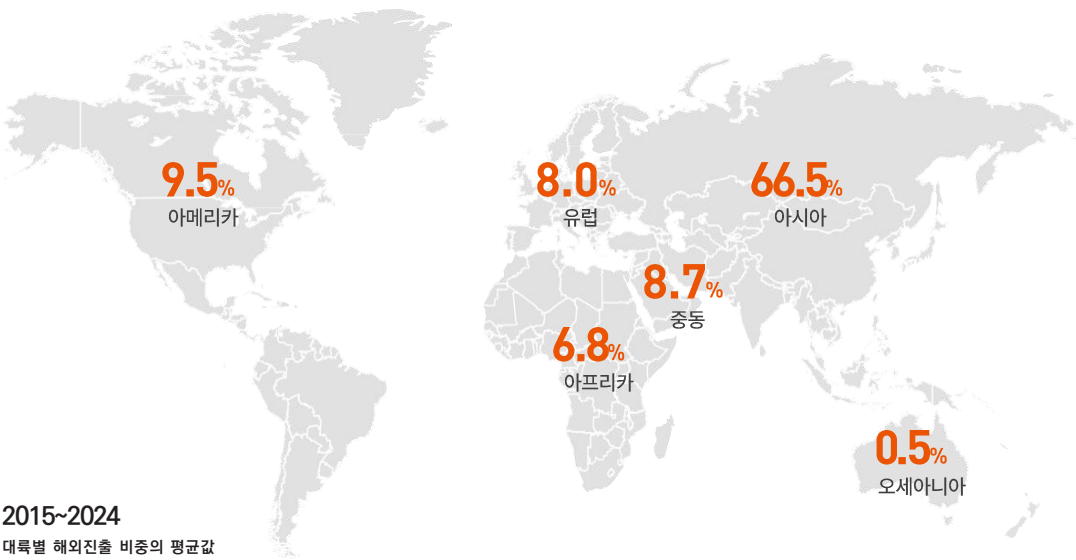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데이터제공, 연구원재가공

## 해외실태조사

### [주요해외실적분석]



### 대륙별 해외 진출 분포 현황



# Issue Brie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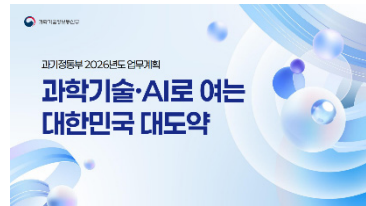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업무계획 52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6 AI·ICT  
10대 이슈 55
  3. Innovators Show Up, CES 2026 57
  4. 2026년 이통3사 설비투자(CAPEX) 전망 59
-

# Issue Brief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업무계획

“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시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목표로 12개 핵심과제를 추진 ”

### 1. 새로운 거버넌스 하에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



- 정립된 과학기술·AI 거버넌스 본격 가동
  - (전략수립) 과기자문회의, 국가AI전략위 → (성과창출) 과기AI부총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범국가 AX협업·추진체계 구축
  - 부처-기업 AX협력·추진체계 구축,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 등
- 정부 R&D 행정혁신 및 성과확산
  - 부처간 경계 없는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R&D 예산 관리체계 고도화 등

### 2.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

-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AI 개발·보급
  - 세계 TOP 10 AI 모델 확보, 국민체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전국민 AI 경진대회 등
-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경쟁력 확보
  - AI데이터센터 진흥특별법(가칭) 제정, 독자 AI모델 + NPU 패키지 완성(~'27년) 등
- 국가 AI 대전환 및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 4대 AX프로젝트 착수(26~30년, 총 3.1조원),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 및 아태 AI 허브 조성

### 3.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 K-문샷 프로젝트 추진
  - 과학기술 · 국가적 난제 해결 위한 임무중심 R&D 프로젝트 기획 · 추진 및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Post-PBS)
- 미래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 AI 바이오 대전환 및 미래 바이오 산업(뇌, 역노화 등) 선도, 양자-AI 융합과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선두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 가속화 등
- 기초연구 강화 및 과기인재 육성
  -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 환경 조성, 우수 이공계 인재 성장경로 구축, 전략적 해외인재유치 등
- 도전과 몰입을 위한 R&D 생태계 혁신
  - 도전적 R&D 문화 조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실현,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등

### 4. 포용성장 · 국민안전 확보

-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 지역 주도 국가균형성장 체계 구축(지역 자율형 R&D 확대), 국민안전 현안대응, 과학 대중화 실현 등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
  - 보안사고 반복기업 대상 징벌적 과징금 부가,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 불시 보안점검과 인증제도의 실효성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Issue Brief

[그림 1] 2026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2.

❖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기(골든타임)를 맞아 과학기술·인공지능 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

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6 AI·ICT 10대 이슈

“ 2026년 주목해야 할 10대 AI·ICT 이슈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AI 반도체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AI내재화(X+AI)로 새로운 생산성 혁명을 이끌 AX 2.0으로 분류됨 ”

### 1. AX Core, AGI를 향한 동적 혁신 본격화

- 에이전틱 AI : AI 페르소나가 온다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자율형 AI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AI 페르소나'로의 진화
- 피지컬 AI : 피지컬 AI, 움직이는 모든 것으로
  - 디지털 공간을 넘어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를 갖고 움직이는 지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예고와 서비스 보편화의 시작
- AI 반도체 :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대전환
  - GPU의 고비용·고전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며, NPU와 AI 특화 메모리 혁신 가속
- 데이터 : 이제는 AI Ready Data
  - 학습용 데이터의 부족에 대응하여 AI가 즉각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 확보

### 2. AX 확산 : 도구를 넘어, 생산성 혁신의 동반자로

- X + AI : 모든 곳의 생산성 혁명
  - 제조, 의료, 국방 등 특화 AI가 전 산업에 내재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명 주도
- 인재 : AI가 초래하는 인과 業의 대전환
  -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되면서, 최정예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및 기업 간 경쟁 심화

# Issue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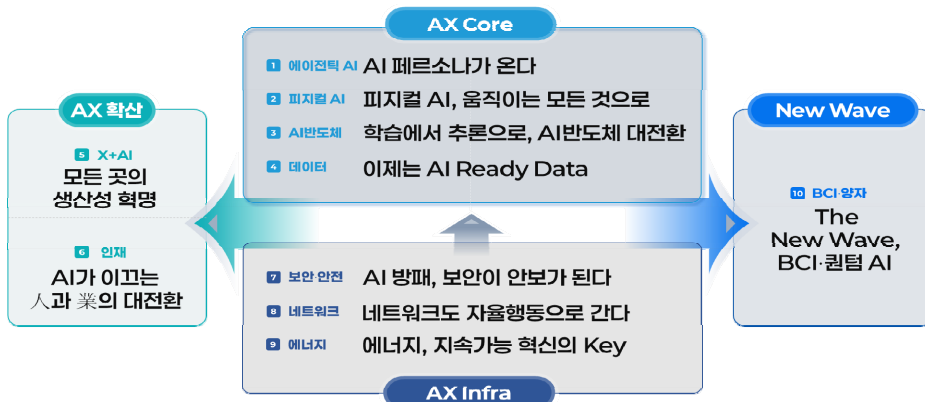
## 3. AX 인프라 : AX 실현을 위한 멈추지 않는 진화

- 보안 · 안전 : AI 방패, 보안이 안보가 된다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AI 방패' 기술을 강화하고, AI 안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법제도 등 안전 생태계 구축
- 네트워크 : 네트워크도 자율행동으로 간다
  - AX 시대 6G 선점 경쟁 격화 속에서 지능화를 넘어 네트워크 스스로 학습하고 관리하는 '완전자율네트워크'로의 진화 가속
- 에너지 : 에너지, 지속가능 혁신의 Key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SMR, 신재생에너지 발굴, 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 해결을 위한 저전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량화 가속

## 4. New Wave : 디지털 너머의 미래가 열린다

- BCI · 양자 : The New Wave, BCI · 퀀텀AI
  -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BCI)를 통해 지능의 경계를 확장하고, 양자컴퓨팅 기반의 '퀀텀AI'로 초고속 연산 시대 예고

[그림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6 AI · ICT 10대 이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 2025. 11.

이번 APEC 2025 디지털·AI 장관 선언문 채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디지털 협력과 인공지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3. Innovators Show Up, CES 2026

“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이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역에서 개최됨 ”

“혁신가들이 등장했다(Innovators Show Up)” 혁신의 주체는 기업 기술이 아닌 혁신가(사람)라는 슬로건 아래 160개국 약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 이번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으로, 일상과 산업 전반에 실체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의 증명이 주목을 받음

[표 1] CES 2026 주요 테마 및 내용

주요 테마	주요 내용(기술)
인공지능(AI)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기업용 AI 시장이 성장
	생성형 AI 등 AI 성능 고도화와 신뢰도 확대를 통한 AI의 역할 확대
로보틱스	AI가 실제 물리 환경을 인식·판단·행동으로 연결하는 산업용, 가정용 피지컬 AI 공개
	빅테크와 모빌리티 기업, 로봇 제조 기업 등 간 협력 확대
모빌리티	자율주행, SDV(Software-Defined Vehicle) 등 차량의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 지속
	다양화되는 차량 활용 방식에 맞춘 하드웨어의 역할 변화 비전 제시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등 주목
	사용자 데이터 AI 분석 기반 발병 전 모니터링과 예방-관리 인사이트 제공 서비스 확대
핀테크	AI를 접목한 금융 혁신 흐름 속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AI 기반 기술·리스크 평가 솔루션 등장
	사이버 보안 중요성 확대에 따라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신원 확인·인증 시스템과 사기·기만 탐지 솔루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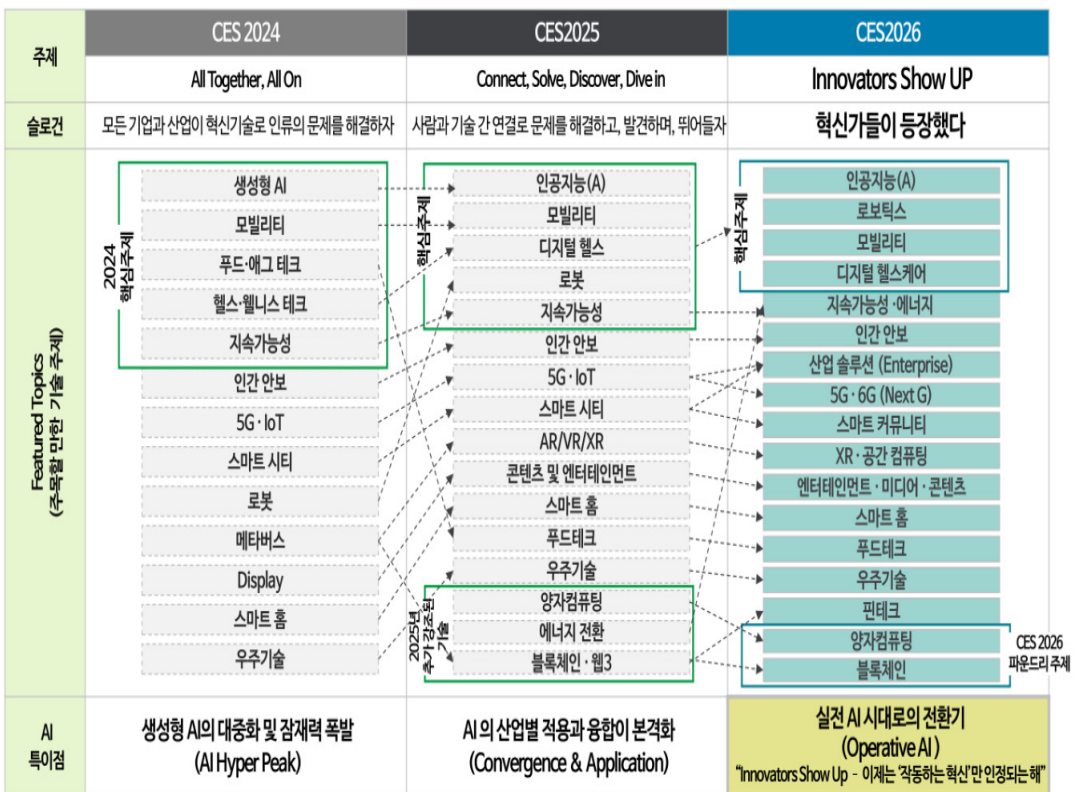
# Issue Brief

[표 2] CES 2026 주요 기조연설자 및 내용

기업명	주요 내용
AMD	‘고성능 컴퓨팅(HPC)’을 AI 시대의 운영체제로 선언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랙 ‘Helios(헬리오스)’를 공개하였으며, AI 생태계 내 경쟁력 강조
Lenovo	AI, 디바이스, 인프라, 서비스 융합과 레노버의 비전 공개 개인용 AI 에이전트인 ‘Qira’와 이를 탑재한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규 AI 웨어러블 공개
NVIDIA	차세대 AI 칩 ‘Vera Rubin(베라 루빈)’을 공개하며, 기존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 5배, 학습 성능 3.5배 향상, 100% 수랭식 냉각을 지원하고 45도의 고온수로도 냉각이 가능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을 전세계 기준 약 6%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
SIEMENS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활용 가치 발표

[출처] 삼성KPMG, Business Focus CES 2026으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2026.1.

[그림 1] 연도별 핵심 주제 변화 추이



[출처] Deloitte, CES 2026 Preview Deloitte's Must-See Strategy, 2025.12.

## 4. 2026년 이통3사 설비투자(CAPEX) 전망

“ 총량은 유지하되, 투자의 흐름이 바뀐다 : 통신망에서 AI·보안 인프라로 ”

### 1. 2026년 이통3사 투자 패러다임 변화

- 2026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약 7조원 내외로 전망
  - 투자의 내용은 전통적인 무선 통신망(LTE/ 5G) 확장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5G SA(단독모드) 전환, 보안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급격히 재편됨
  - 이는 통신사가 '단순 회선 제공 사업자'에서 'AI 및 플랫폼 사업자'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도기적 투자가 정점에 달했음을 시사함

### 2. 이통3사 설비투자(CAPEX) 시장 종합 전망

- 총 투자 예상 규모
  - 약 6.6조 원 내외(전년 대비 포함 또는 소폭 상승)
  - 무선망 투자는 감소 추세이나, 고가의 GPU 서버 및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 증가로 전체 총액은 유지

[표 1] 이통3사 설비투자 전망 및 주요 요인

구 분	2026년(전망)	주요 증감 요인
KT	2.16조 원	대규모 보안 투자 및 AX(AI전환) 인프라 구축
SK텔레콤	2.39조 원	AI 데이터센터(AIDC) 집중 투자로 소폭 상승
LGU+	2.02조 원	5G SA 고도화 및 내부 시스템 안정화
합계	약 6.6조 원 내외	무선망 투자 감소, AI/IDC 투자 증가

[출처] NH투자증권, 통신서비스, 2025. 11.

# Issue Brief

- AI 인프라 투자
  - 생성형 AI 서비스 구동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센터 및 GPU 서버 확보가 CAPEX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함
- 규제 대응 투자
  -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조건(2026년 말까지 5G SA 사용화 완료) 이행을 위한 코어망 장비 전면 교체 및 업그레이드 진행
- 보안 리스크 관리 투자
  - 최근 발생한 해킹 및 통신 장애 방지를 위한 백업망 구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 3. 이동 3사 세부 투자 전략

- KT
  - 보안이 곧 경영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솔루션 도입, MS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국형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 추진
- SK텔레콤
  -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되,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 추진
- LGU+
  - 네트워크, 보안, 품질, 안정성 확보 및 통신·AX 사업 추진

## 4. 결론 및 시사점

- AI 관련 고비용 투자, 통신사업자 신뢰 회복, 주파수 재할당 조건(5G SA) 이행을 위한 투자가 예상됨



# Stats

- 
- |                        |    |
|------------------------|----|
|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62 |
|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 63 |
-

# Stats

##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 정보통신공사비지수(국가통계 승인번호 제412001호)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지소화한 지표, 발표 시점과 예정가격 산정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 반영, 계약 이후의 표준시장단가 계약금액 조정 등에 사용됨



### 》 2025년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추이

※ '25년 12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26년 1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25년 12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 129.36 (2020년=100)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품목 중 1차 금속제품의 가격이 1.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가격이 2.3% 상승하며 정보통신공사비지수가 상승하였음

**0.59%** 상승 ↑ 전월 대비  
**4.23%**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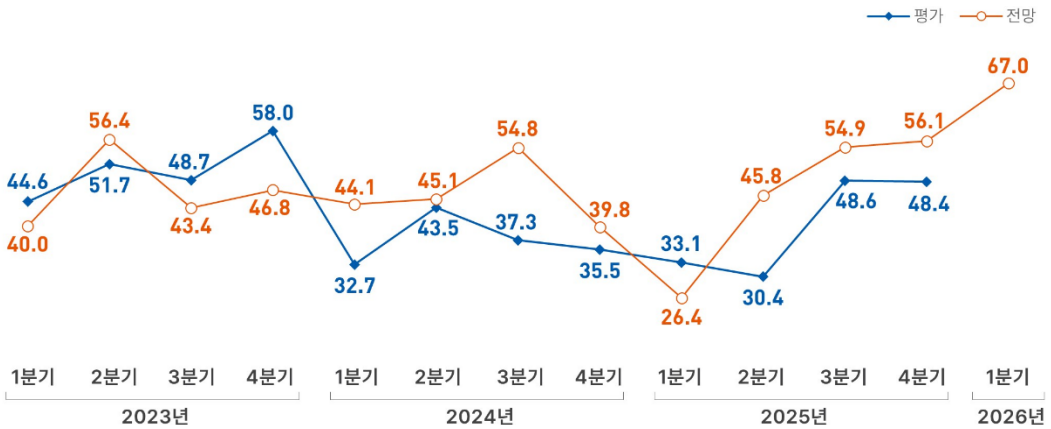
### 》 기본부문의 전월 대비 등락률



##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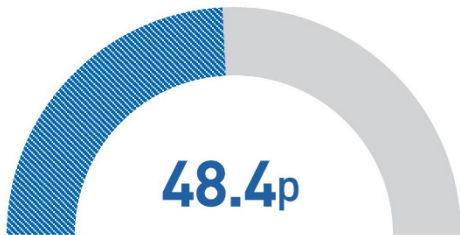
### 경기실사지수(BSI)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  
100 이상이면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 경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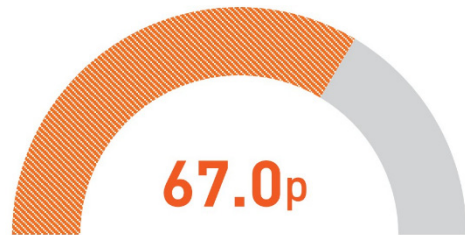
3분기 평가 대비 0.2p 하락 ↓



[2025년4분기평가]

### 경기전망

4분기 평가 대비 18.6p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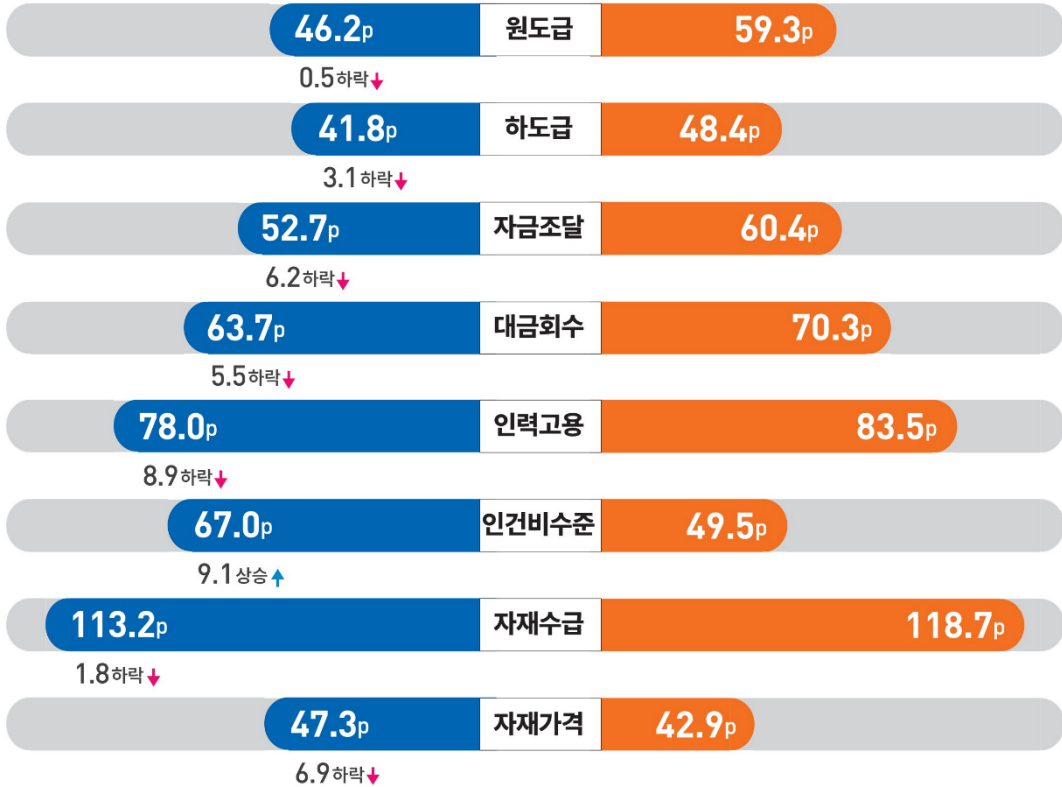


[2026년1분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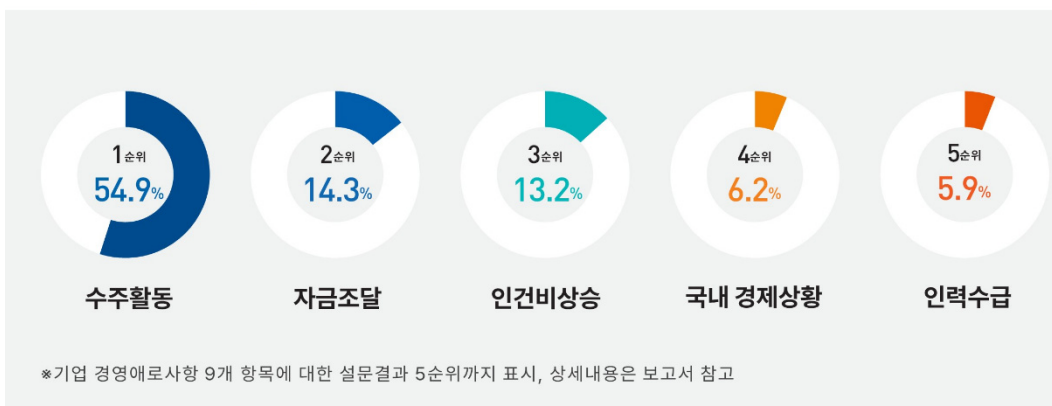
# Stats

[2025년4분기평가]

[2026년1분기전망]



## 경영애로사항



## 2026 연구원장 신년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백운일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약의 새 출발선에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를 목격했습니다. AI 시대를 뒷받침할 고성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확충, 초고속·초저지연을 지향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고도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재난 안전망 구축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수행해야 할 핵심 과업이자 필수적인 책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공사업은 단순한 기반 산업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토대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한발 앞선 시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준품셈과 설계·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사비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정책·제도 연구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였으며, 디지털 재난 안전, 유지·보수, 융합 신산업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여 업계가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연구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Think-tank를 넘어, 정보통신공사업 혁신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Innovation Hub’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적정 공사비 확보 기반을 흔들림 없이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표준품셈과 공사비 산정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업계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기술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신융합 공종과 미래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디지털 인프라 확산 등 데이터 기반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표준공법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를 발 빠르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기술적 외연을 넓히고, 우리 업계가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정책·제도 혁신’으로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과 중장기 전략 연구를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이 어떤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자생적 성장 구조를 갖추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미래 필수 과제인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ICT 기반 재난관리의 전주기 체계를 정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원은 “기본에 충실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업계, 정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답이 있는 연구, 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연구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2026년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언제나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대구·경북도회) 개최

**일시** 2025. 10. 21.

**장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대회의실



대구·경북도회 운영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산업·시장·경영 환경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



## 2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회·합동점검 실시

**일시** 2025. 10. 22.

**장소** KT 서수원국사



안전점검 현장 종사자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합동점검·위험성 평가 실시



## 3 2025년 과기정통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일시** 2025. 10. 30.

**장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실 내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 지원



## 4 APEC 2025 KOREA 개최 통신장애 사전 대비 현장점검 실시

**일시** 2025. 10. 30.

**장소** 경북 경주 APEC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 지원 및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주요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5**  
2025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1.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6년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안) 심의



**6**  
2025년 제10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협의회 개최

**일시** 2025. 11. 5.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2025년 8~9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점검결과 및  
대안조치 적정성 논의



**7**  
2025년도 제 2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1. 13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6년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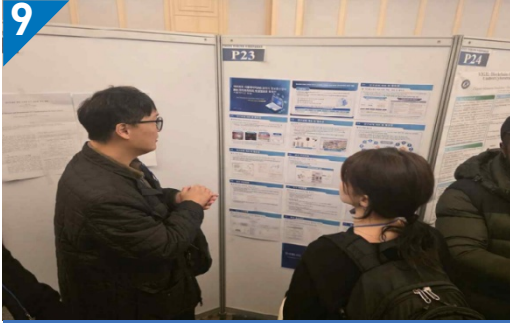
**8**  
2025년도 제4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1. 19.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5년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작성 최종(안) 보고 및 수정  
의견 수렴



## 2025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참석

**일시** 2025. 11. 19 ~ 21.

**장소** 라한셀렉트 경주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 참석하여 2건의 논문 발표를 통해 BIM 연구성과 홍보 및 기술 필요성 공유



## 국가 기반시설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전략 워크숍 참석 및 발표

**일시** 2025. 11. 20.

**장소** 라한셀렉트 경주



국가 기반시설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전략 워크숍에서 발표를 수행하고, 재난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 2025년도 제 3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1. 25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6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



##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부산·울산·경남도회) 개최

**일시** 2025. 11. 27.

**장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운영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시장·경영 환경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



**1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주)와이즈넥스  
AI/DX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5. 11. 28.

**장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AI/DX 전환, 정책연구 및 R&D,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4**  
2025년도 제4차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1. 28.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5년도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표준설계설명서 및 표준공법) 작성 최종(안) 보고 및 수정 의견 수렴



**15**  
2025년도 제2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2. 2.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5년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작성 최종(안) 보고 및 수정 의견 수렴



**16**  
2025년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회  
개최 및 지원

**일시** 2025. 12. 3.

**장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3층 회의실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부가통신/데이터센터 분야) 및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분야) 관련 심의회 개최



## 17 2025년도 제 3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2025. 12.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6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



## 18 해저케이블 자료제공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일시** 2025. 12. 5.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해저 통신케이블 자료제공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초안 및 보완 필요 내용 검토



## 19 2025년 통신재난관리 실무협업체 워크숍 개최

**일시** 2025. 12. 9.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통신재난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정보 공유, 전문가 발표 및 정부-주요통신사업자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 2025년 BIM 사업 성과보고 및 최종 평가 준비 워크숍 개최

**일시** 2025. 12. 10 ~ 11.

**장소** 곤지암리조트



기관, 연차별로 진행된 『정보통신 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 개발』 사업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여 최종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종료 및 평가 준비 사항 점검 논의



21

**2025년도 제3차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연구반 회의 개최**

**일시** 2025. 12. 12.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



'25년도 기술기준 연구반 운영 경과 보고 및 '26년도 제개정 검토안건 논의 진행



22

**2026년 연구원 시무식 개최**

**일시** 2026. 1. 8.

**장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및 이사장 표창 수여, 연구원 임·직원 간담회 개최 등

# Event Info

**K-AI 혁신,  
세계로 향하다**

CES AI 혁신 플라자

2026.01.21.(수)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VIC, IBK, ETRI, KIAI

### K-AI혁신, 세계로 향하다

2026. 1. 21.(수)  
코엑스 컨퍼런스룸/아셈볼룸

<https://www.aiseoul2026.com/kr/>

- 행사소개: CES 2026을 통해 도출된 글로벌 AI 기술 동향과 국내 AI 혁신기업의 주요 성과 공유

🔍

CES 2026 주요 트렌드 및 혁신상 수상 결과와 디브리핑 세미나, AI 혁신기업 피칭 및 상시 쇼케이스를 통한 국내 AI 기업 소개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AI SEOUL 2026

2026. 1. 30.(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https://www.aiseoul2026.com/kr/>

- 입장료: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2026년 2월 3일(화)까지

🔍

현재 시가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 핵심 인사이트 제시

주최 : 서울특별시

**ai** SEUL 2026

The Transformation Era  
: Beyond Adoption

전환의 시대, 도입을 넘어선

2026. 01. 30.(금) 09:00 ~ 17:30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대한민국 대표 건설 안전 컨퍼런스에 전문 전시회, 지속가능성 기준을 세우다

KOREA BUILD WEEK  
코리아빌드위크

**스마트  
건설안전산업전**

2026.2.4~7\*  
KINTEX

· 과학기술  
· KPIAS 스마트건설  
· 건설안전 2026  
· 건축공구산업전  
· 차량·호우 산업전  
· OGC EXPO  
· 건설기술혁신사업  
· 건설안전혁신사업  
·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  
· 기후공기환경산업전  
· 에너지안전산업전  
· 에너지안전혁신사업

### 스마트 건설안전산업전

2026. 2. 4.(수) ~ 7.(토)  
킨텍스 제1전시장

<https://smartconsafety.com/>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단체 10,000원 (사전등록시 무료)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2026년 2월 3일(화)까지

🔍

스마트 안전 솔루션과 웨어러블 장비 등 현장 적용 기술부터 플랫폼까지 건설 현장 안전 기술 제시

주최 : (주)메세이상, 서울신문



제25회 세계 보안 엑스포 | 제14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6. 3. 18(수) - 20(금) | KINTEX 제1전시장 3-5홀

### 제25회 세계 보안 엑스포

2026. 3. 18.(수) ~ 20.(금)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

<https://www.seconexpo.com/2026/kor/main.asp>

- 입장료: 15,000원 (사전등록시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3월 17일(화) 18:00까지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선보이며, AI 등 최신 IT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분야 전반의 트렌드 제시**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WC Barcelona 2026

2026. 3. 2.(월) ~ 5.(목)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https://www.mwcbarcelona.com/>

- 입장료: VIP €5,499 / 컨퍼런스 €2,419 / 전시 €989
- 등록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등록

**전 세계 ICT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및 정보통신 전시회로 AI, IoT, ICT 트렌드와 관련 기술 발표**

주최: GSMA




### NVIDIA GTC 2026

March 16-19  
San Jose, CA



### NVIDIA GTC AI 컨퍼런스 2026

2026. 3. 16.(월) ~ 19.(목)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컨벤션 센터

<https://www.nvidia.com/ko-kr/gtc/>

- 입장료: 컨퍼런스 \$2,172 / 전시 \$820 / 온라인 무료
- 얼리버드 등록 기간: 2월 2일(월)까지

**전 세계 개발자, 연구원,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차세대 AI 혁신을 탐구하는 컨퍼런스이며, 피지컬 AI, AI 팩토리, 에이전틱 AI, 추론 등 모든 산업을 바꿀 핵심 기술 공유**

주최: NVIDIA